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와 사회동향

3.24 (금), 10:00~12:20 서울대학교 삼익홀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와 사회동향

2023. 3. 24.(금)

서울대학교 삼익홀

프로그램

시간	세부사항
10:00~10:10 ('10)	■ **인사말씀** • **개회사** : 한 훈 통계청장 • **환영사** : 박원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10:10~10:30 ('20)	■ **기조연설** :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10:30~11:30 ('60)	■ **주제발표** 좌장 :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 **주제1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 **주제2 :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사회적 조건으로서 쉼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주제3 :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일의 변화** 정인관 숭실대학교 교수 • **주제4 :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11:30~12:20 ('5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3. 3. 24

포스트 코로나19와 사회동향

이재열
jyyee@snu.ac.kr

1

무대의 이면: 나라마다 다른 취약성

감옥처럼 닫힌 조직 (신천지교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콜센터)
과다성장 자영업

시민사회 없는 국가주의, 묵살된 경보, 감시사회

채용과 해고가 쉬운 고용제도와 실업대란, 고용에 묶인 의료보험,
저축 없는 사회, 빈부격차, 리더십부재

애국적 비밀주의, 매뉴얼 사회의 경직성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 (英 N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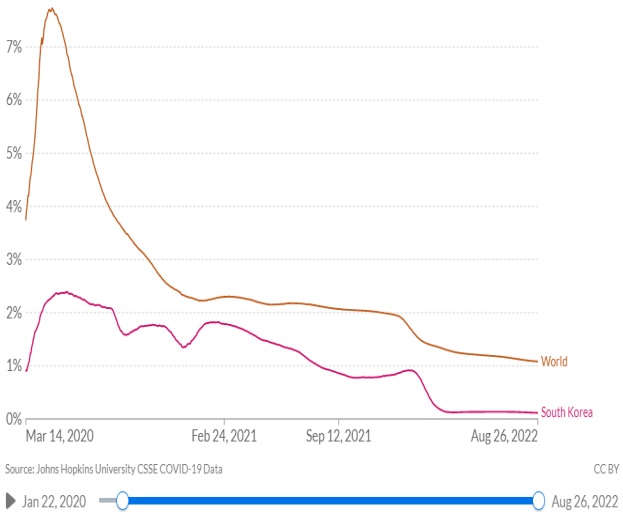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치명률

	누적 확진자 수(명)	누적 사망자 수 (명)	치명률 (%)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수(명)
페루	3,592,765	213,343	5.9	647.1
헝가리	1,923,122	46,594	3.2	535.7
브라질	31,611,769	668,693	2.1	314.6
미국	85,941,735	1,012,607	1.2	307.4
이탈리아	17,736,696	167,553	0.9	277.1
영국	22,638,832	180,078	0.8	265.3
프랑스	30,175,534	149,986	0.5	229.9
스페인	12,515,127	107,239	0.5	229.4
스웨덴	2,510,930	19,049	0.8	188.6
독일	27,096,571	140,099	0.5	168.5
네덜란드	8,218,556	22,956	0.3	133.9
이스라엘	4,205,416	10,882	0.3	125.7
덴마크	3,194,812	6,468	0.2	110.8
캐나다	3,923,344	41,742	1.1	109.1
한국	18,256,457	24,497	0.1	47.8
호주	7,753,800	9,269	0.1	36.4
일본	9,079,462	30,961	0.3	24.5
싱가폴	1,355,801	1,401	0.1	23.9
대만	3,135,565	4,714	0.2	19.8

주: 1) 치명률=(누적 사망자수÷누적 확진자 수)×100.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Mortality Analysis
(https://coronavirus.jhu.edu/data/mortality), 2022. 6.17.

(출처) 조병희, "건강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 한국과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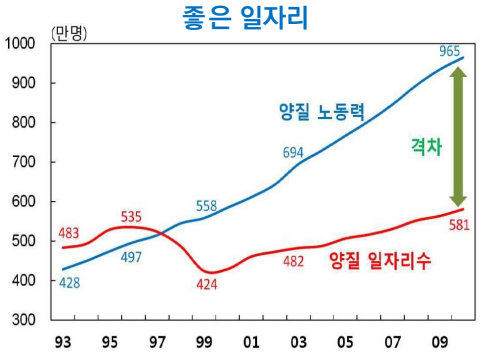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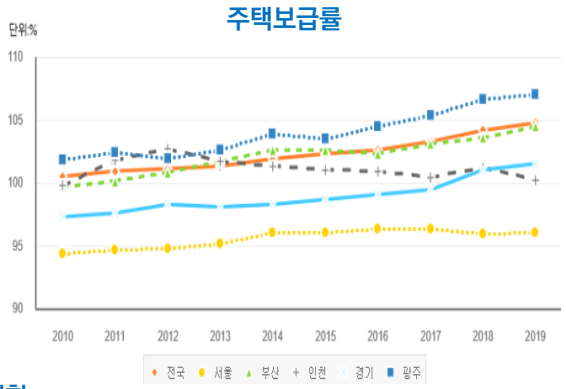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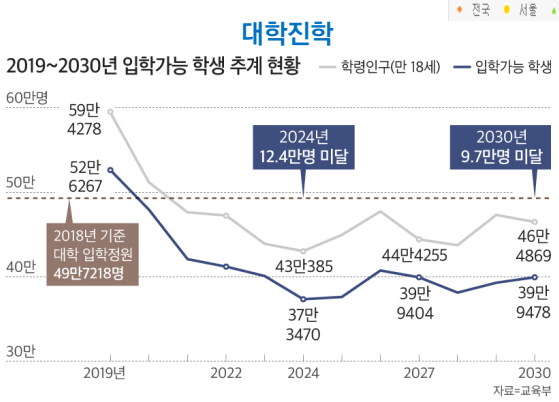
1. 인구재생산의 위기
   - 최저 출산률 (악화) /급속한 고령화 (악화)/ 부담률의 증가
2.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결혼감소)
3. 동기부여의 위기 (악화)
   - 장시간 노동/ 낮은 행복감 (악화)/ 줄어드는 중산층 귀속감/ 최고수준의 자살률 (악화)
4. 심각한 신뢰적자
   - 신뢰의 하락/ 투명성 (다소 개선)
5. 경쟁력의 위기
   - 떨어지는 국가경쟁력 (무역수지 악화)

4

일자리, 주택, 대학진학







성장의 사회적 한계 (Fred Hirsch)

- 물질재 (Material good)와 지위재(Positional good)

1. **풍요의 역설** (Paradox of af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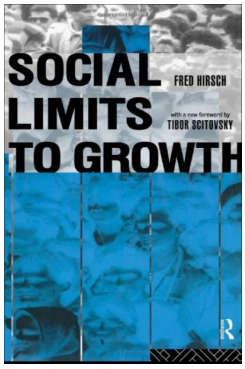
   경제적 성취가 모든 사람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성취하게 될 때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2. **분배강요** (Distributional compul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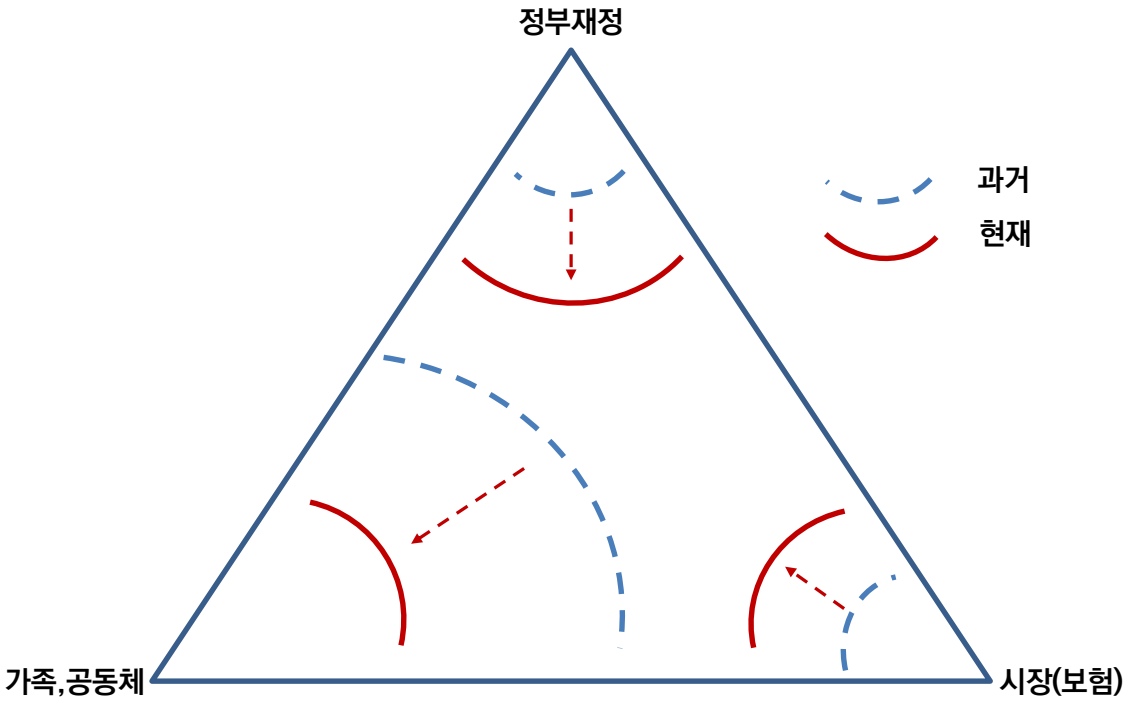
   대다수가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왜 파이를 나누는데 집착하나

3. **미온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성적 기호나 미학적 취향에서는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20세기 사회에서 경제영역에서는 왜 집단적 요구나 국가 규제가 더 보편적이 되고 있나



복지삼각형



7

Korean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Variables	Ranking among OECD		Status
General	Household income	17/35	+	OK
	Fertility rate	35/35	–	Worst
	Aging	35/35	–	Worst
Work	Employment	20/36	+	OK
	Unemployment rate	3/35	+	Best
	Unemployment insurance	28/35	–	Bad
Equality and Welfare	Income inequality	18/35	+	OK
	Relative poverty rate	26/35	–	OK
	Elderly poverty rate	35/35	–	Worst
	Support for Unemployed	25/32	–	Bad
	Welfare expenditure (% among GDP)	34/35	–	Worst
Health	Life expectancy	10/35	+	Good
	Perception on Health	34/34	–	Worst
	Suicide Rate	35/35	–	Worst
	Expenditure on health	26/35	–	Bad
	Smoking/drinking	15–20/35	–	OK
Social integration	Life satisfaction	28/35	–	Worst
	Trust on strangers	23/35	–	Worst
	Trust on government	29/33	–	Worst
	Anxiety for future	14/15	–	Worst
	Crime rate	18/35	+	OK
	Social relation	28/34	–	Bad
	Loneliness of 50s	34/34	–	Worst

8

"집단적 자살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로

- **현재의 증상**

미래에 대한 불안, 제도 불신, 현실 불만

청년층의 과도한 위험기피

소극적 참여와 변화의지 부족

각자도생 경쟁 과 낮은 공동체 의식

불행감

- **더 나은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 제도 신뢰, 현실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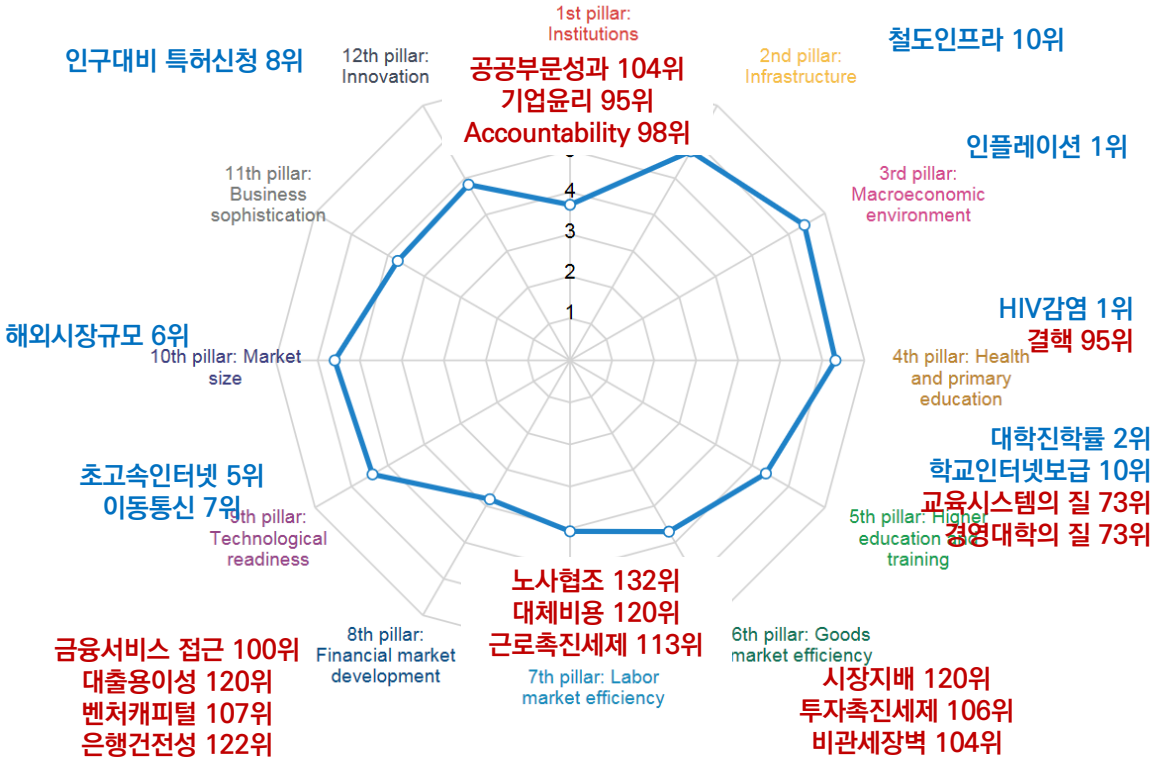
적극적인 창업과 혁신 정신

참여를 통한 능동적 변화

높은 공동체 의식

높은 행복감

국가경쟁력의 명암



잠재적 갈등/해결역량

정치불안정, 폭력 = $\frac{\text{사회근대화}}{\text{정치/제도근대화}}$

△성장 = − 외부충격 * $\frac{\text{잠재적 갈등}}{\text{갈등관리제도}}$

통합 =

복지 + 민주주의 + 공정성

불평등 + 배제 + 불신

사회갈등을 풀어갈 정치권력의 작동방식의 중요성.
정치제도 변경 – 미래의 권력 재규정 – 자원배분 규칙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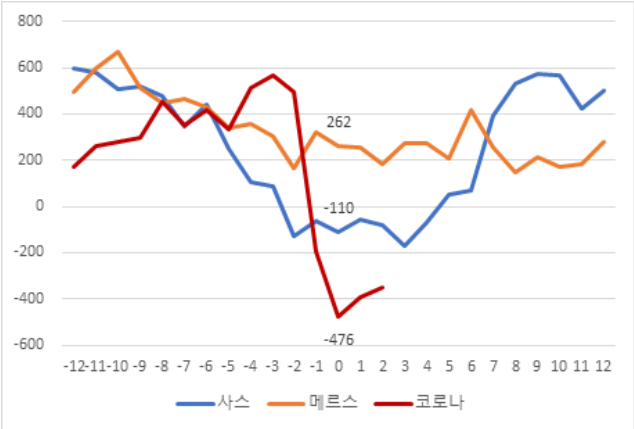
- Samuel P. Huntington (1972) Civil violen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delphi Papers*, 11:83, 1–15
- Dani Rodrik, "Globalization,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The World Economy* 21 (2), 143–158
-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5).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In Aghion, P., & Durlauf, S. N.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I A. Elsevier B.V.

- 잠재적 갈등 = 불평등 + 인종,언어갈등 + 불신
- 갈등관리제도 = 민주주의 + 정부제도의 질 + 복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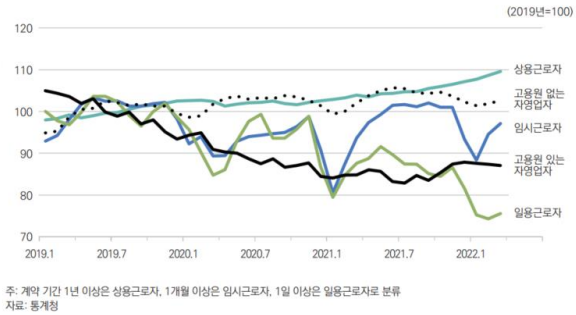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경제적 불평등 (Gini Coefficient)

Selected South and Middles Americas	Selected African	Developed Countries	Selected East Asian Countries
Argentina—urban 2001 (0.51) Bolivia 2002 (0.58) Brazil 2001 (0.59) Chile 2000 (0.51) Colombia 1999 (0.54) Ecuador 1998 (0.54) El Salvador 2002 (0.50) Guatemala 2000 (0.58) Honduras 1999 (0.52) Panama 2000 (0.55) Paraguay 2001 (0.55) Haiti 2001 (0.68)	Botswana 1993 (0.63) Central African Rep. 1993 (0.61) Lesotho 1995 (0.63) Malawi 1997/1998 (0.50) South Africa 2000 (0.58) Uganda 1991 (0.59) Zambia 1998 (0.53) Zimbabwe 1995 (0.57)	Australia 1994 (0.32) Belgium 2000 (0.26) Canada 2000 (0.33) Denmark 1997 (0.27) France 1994 (0.31) Germany 2000 (0.28) Ireland 2000 (0.31) Italy 2000 (0.31) Luxembourg 2000 (0.29) Norway 2000 (0.27) Spain 2000 (0.35) Sweden 2000 (0.25) Russian Federation 2002 (0.32)	Malaysia 1997 (0.49) Taiwan, China 2000 (0.32) **Republic of Korea 2005 (0.32)** **Thailand 2005 (0.44)** **Selected Fast Growing Countries** India 1999/2000 (0.33) China 2001 (0.45)

고용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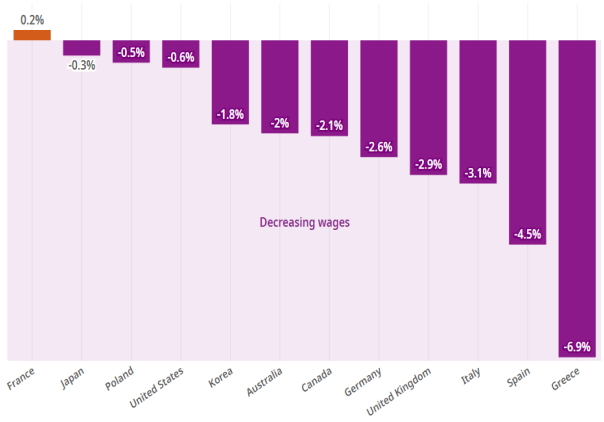
주: 1) 가로축의 값은 사스는 2003년 6월, 메르스는 2015년 6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월의 차이를 의미
2) 사스와 메르스가 발생한 해의 고용 저점은 주1)의 시점과 다르지만 두 감염병의 감염 시기를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2003년 6월과 2015년 6월로 하였음. 기준시점을 변경하더라도 해석상 차이는 없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오상봉, "코로나19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2020>에서 재인용



(출처) 이승훈,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IPA 조사포럼 40호, 2022

실질임금하락과 소득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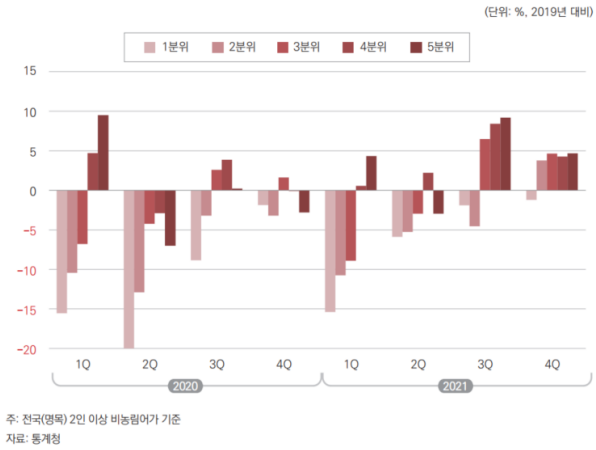
최근 OECD 주요국의 실질임금 하락 2019.1-2022.5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Edition 2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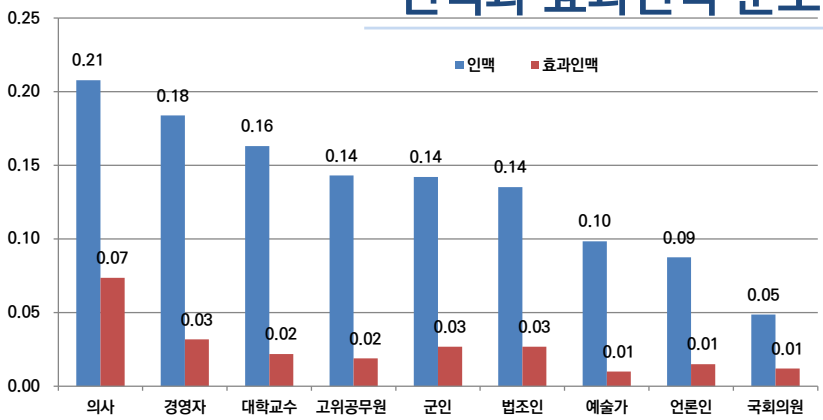
(출처) 권현지, "노동영역의 주요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2

근로소득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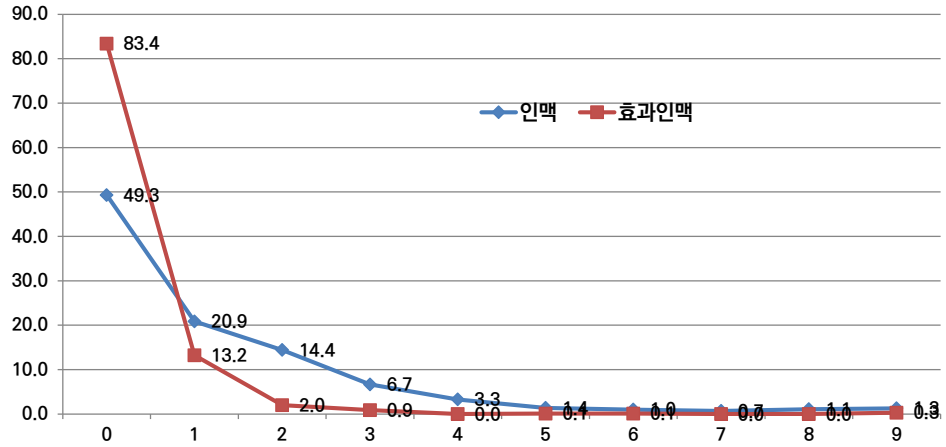
(출처) 이승훈,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IPA조사포럼, 2022, 봄

인맥과 효과인맥 분포



가족, 혹은 8촌 이내 친지나 친구 동창중 해당되는 사람/도움받은 경우

효과인맥 GINI = .815
순자산 GINI = .616
소득 GINI = .35



플랫폼 사회와 디지털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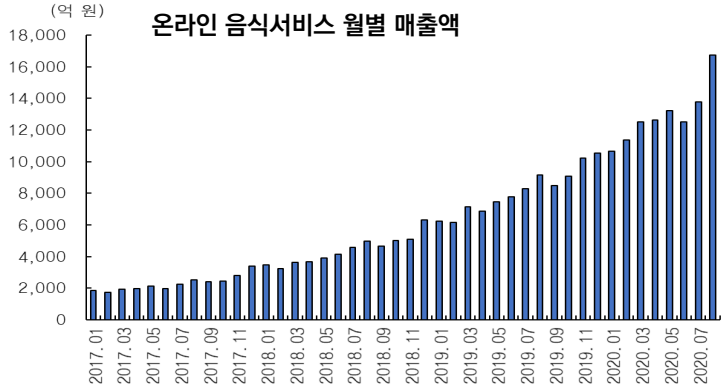
디지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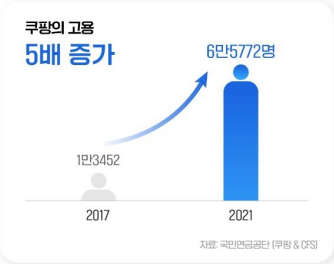
- 인터넷, 정보통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 중심의 비즈니스로 구성된, 플랫폼 중심의 경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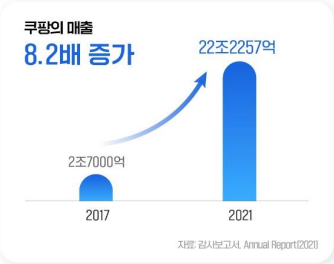
전통경제와의 차이

- 전통경제는 제조업 기반,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
- 디지털경제는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

온라인 쇼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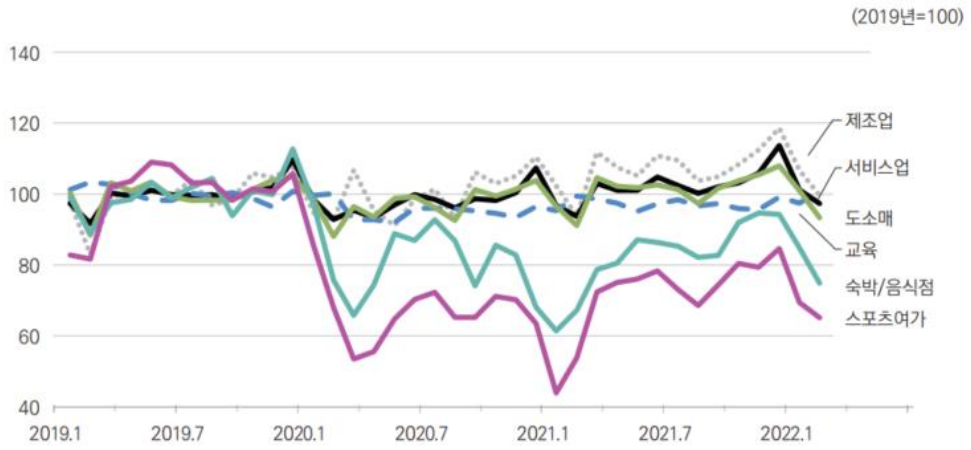




업종 양극화

그림 10

업종별 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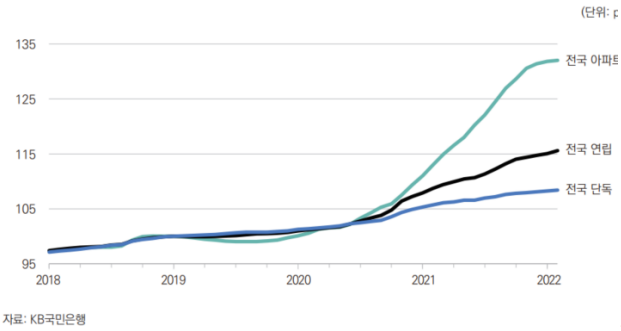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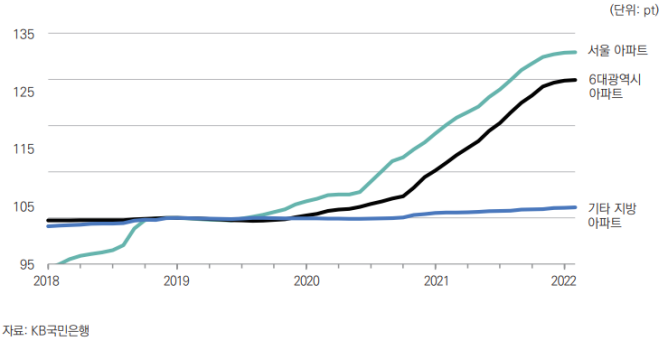
(출처) 이승훈,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IPA조사포럼, 2022, 봄

부동산 양극화

아파트 연립 단독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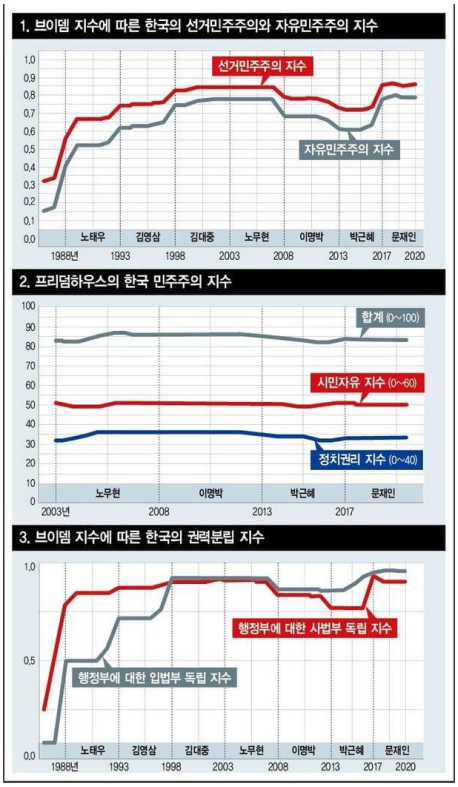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출처) 이승훈,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IPA조사포럼, 2022,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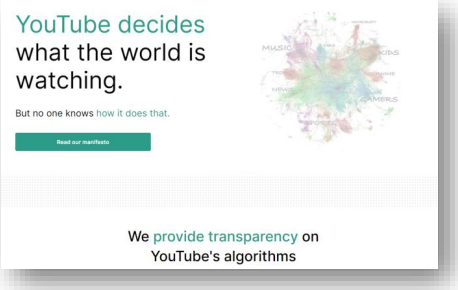
개선된 민주주의



탈진실시대의 도래

- 이념에 기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가
  - 좌파는 생물학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 우파는 선천적 성적 혼란을 인정하지 않음
- 정보전달 미디어가 중립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전하는가
  - 매스미디어의 게이트 키퍼 역할 소멸
  - 명확한 이념성향 매체의 단골 소비층 확보 전략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전하는가
  - 가짜 뉴스의 범람
  - 합리화하는 유권자, 잘못 알고 있는 유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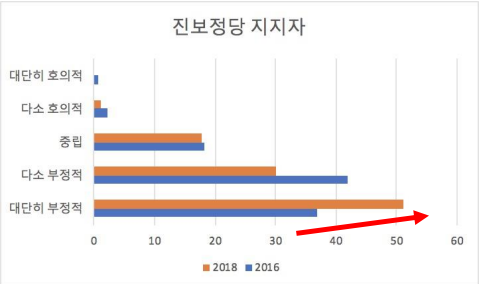
기욤 샬로(Guillaume Chaslot) 전 구글 엔지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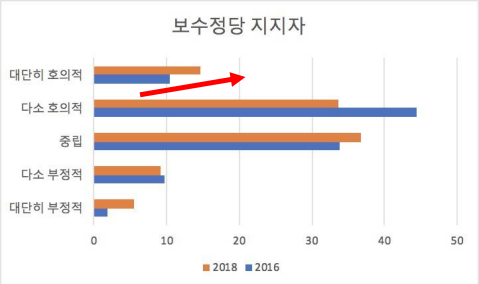


"유튜브는 독 든 음식도 내주는 식당"…개발자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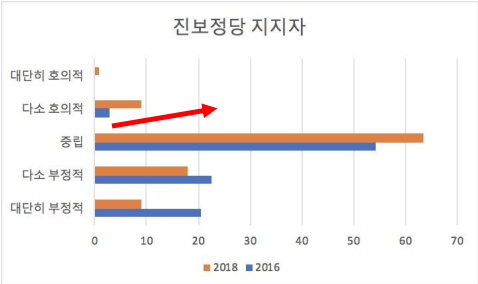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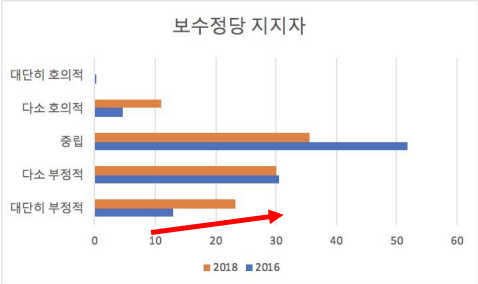
보수 정당에 대한 감정





진보 정당에 대한 감정





(출처) 하상응,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부족한 복지지출

[그림 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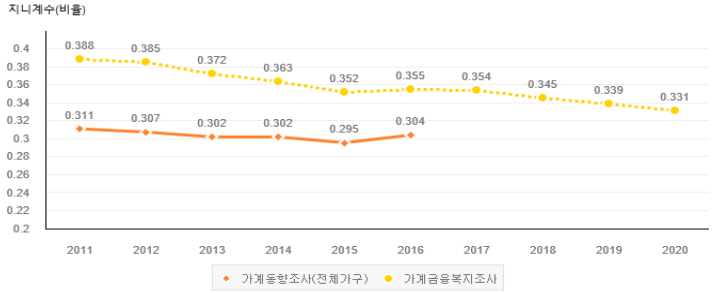
(단위: %)

주 1. 호주와 일본은 2017년 데이터, 그 외 36개 국가들은 2018년 데이터
2. 그래프의 회색 선은 OECD 전체 38개국의 국민부담률 및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
3. 파란색 선 그래프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의 변화 추이이며, 노란색 선 그래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수지균형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위원회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전망 결과를 2020년부터 10년 단위로 2060년까지 연결한 추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0

제한된 분배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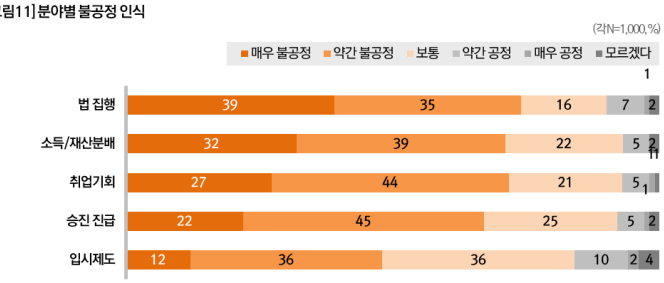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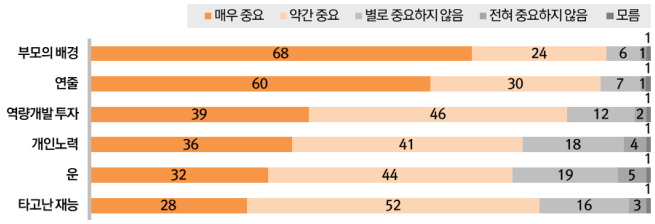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 (2021)

[그림11] 분야별 불공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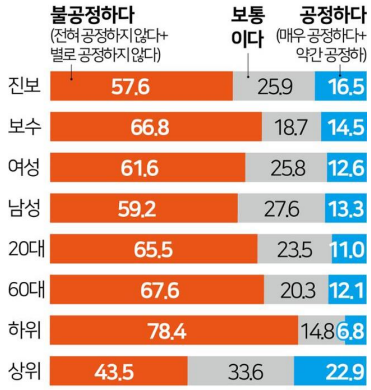


[그림14]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



출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16

전반적 사회 공정성에 대한 집단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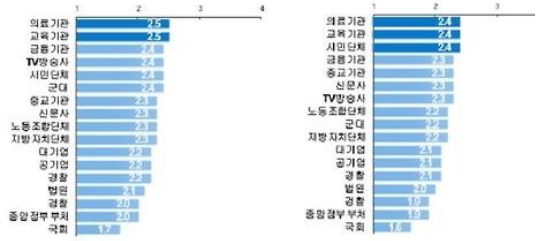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립대 글로컬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33009530005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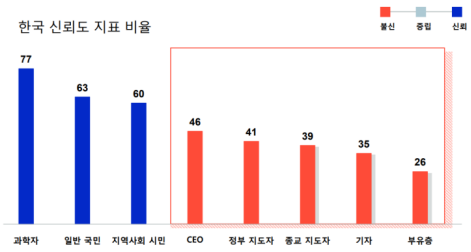
믿을 수 없는 심판

기관별 신뢰도와 청렴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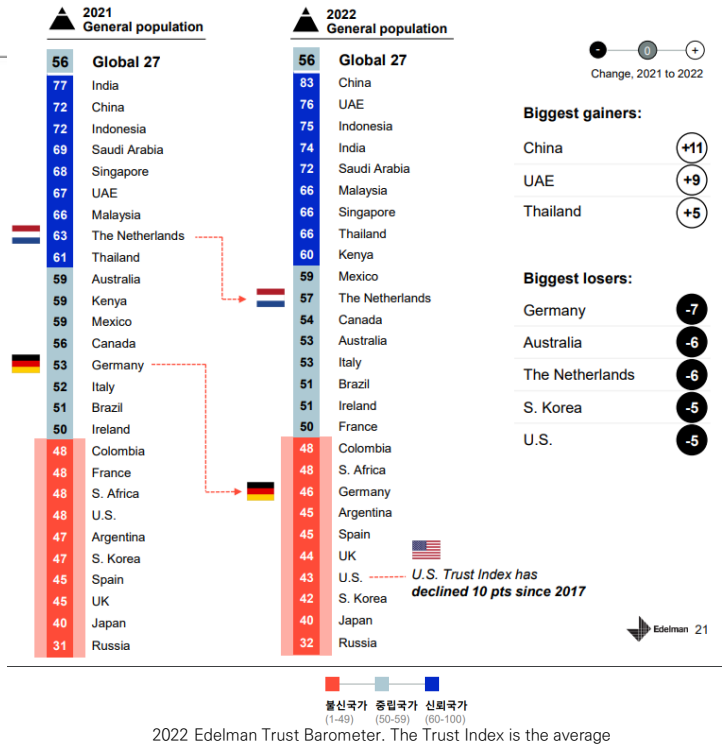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

한국 신뢰도 지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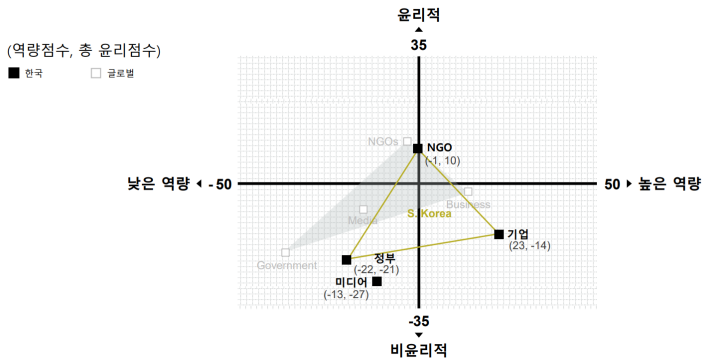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Edelman 기관신뢰도 2022



2022 Edelman Trust Barometer. The Trust Index is the average percent trust in NGOs, business, government and media.

역량과 윤리를 갖춘 기관의 부재, 개선되는 투명성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최근 10개년 부패인식지수 그래프.(출처=국민권익위원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양극화와 통합

	사회구조		양극화지표	통합역량
	이념 (문화, 종교, 규범)		이념양극화	규범역량
의미부여	⇑⇓	해석틀제공		
	사회관계 (정당, 집단, 세대)		사회양극화	생활세계역량
기회제약	⇑⇓	자원통제		
	경제적 기반 (산업, 고용, 환경)		경제양극화	체계역량

$$\text{통합} = \frac{\text{체계역량} + \text{생활세계역량} + \text{규범역량}}{\text{경제양극화} + \text{사회양극화} + \text{이념양극화}}$$

통합 방정식과 한국의 현실

통합 역량

체계역량 (복지)
- GDP 대비 복지지출, 국민부담률은 저부담-저복지
- 소득재분배로 인한 지니계수개선률은 OECD 절반수준 (12%)

생활세계역량
- 아시아에서는 1등급, 그러나 미흡한 민주주의
- 시민사회의 역량과 토양의 문제

규범역량
- 투명성은 최근 들어 개선 (김영란법의 효과)
-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

잠재 갈등 소지

경제양극화:
- 역사적으로는 평등한 성장. 최근 들어 지니계수 악화. 코로나 19이후 심화
- 소득 불평등 〈 자산 불평등 〈 인맥불평등

사회양극화
- 인종, 언어, 종교적 갈등이 작은 동질적 사회. 지역감정 약화
- 심각한 신뢰 적자 (국회,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특히 심각)

이념양극화
- 이념적 양극화 〈 정서양극화
- 극단적인 세대 차이
- 탈진실시대 가짜뉴스, 진영화와 혐오를 확대하는 필터버블 플랫폼사회

$$\text{통합} = \frac{\text{복지정책} + \text{민주주의} + \text{공정성}}{\text{불평등} + \text{배제} + \text{불신}}$$

29

주제발표 1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3/24/2023)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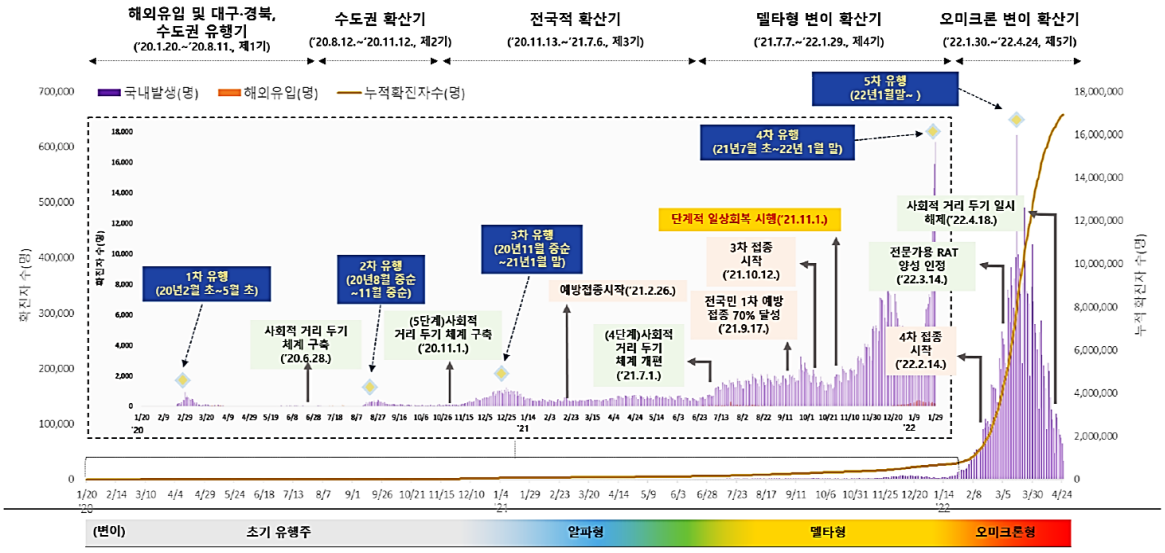
1

개요

- 배경
  -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 사망력 추이
- 자료와 방법
  - 자료: Short Term Mortality Fluctuations (STMF)
  - 방법: 초과사망률(Excess mortality rates) 추정
  - 한국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
- 분석결과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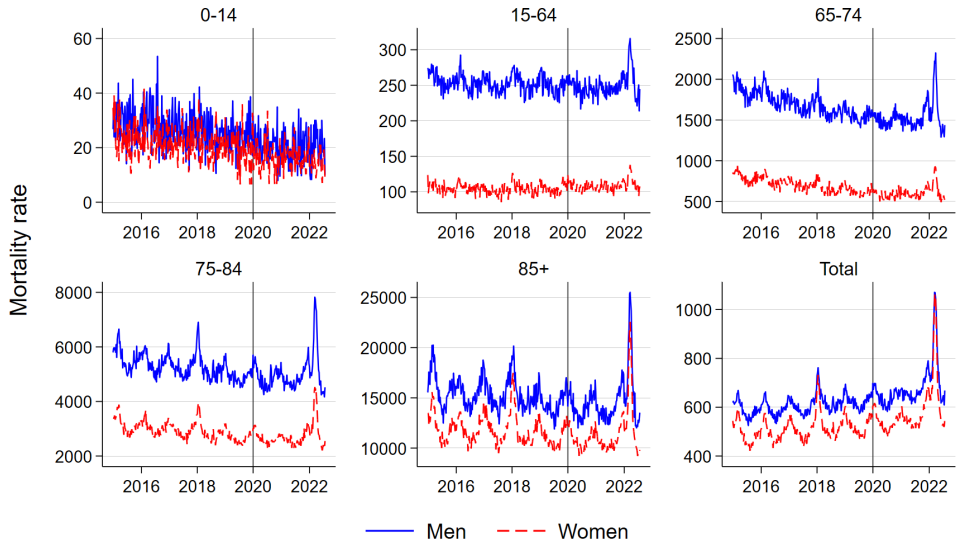
2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안선희, 2022)



3

Age-specific annualized weekly mortality rates (2015~22)



4

자료와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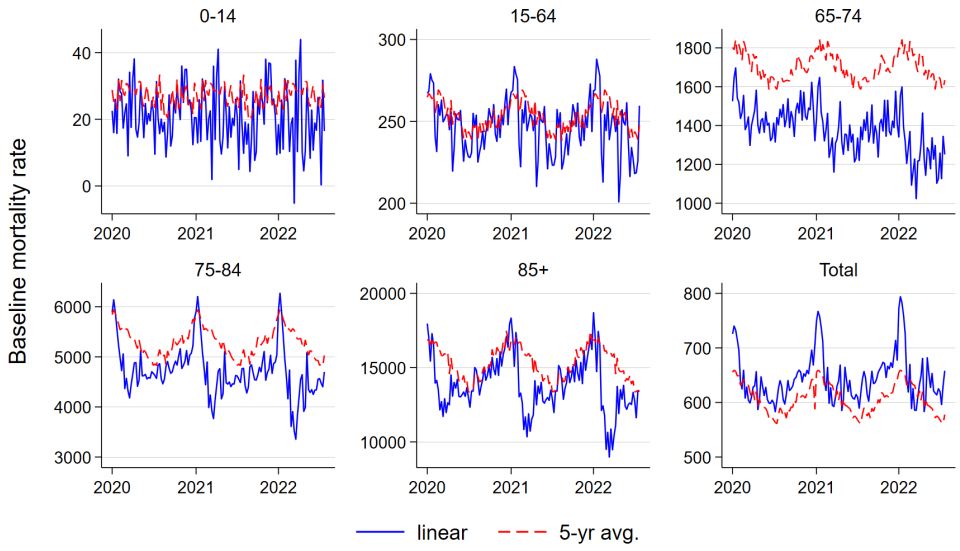
- STMF (Jdanow et al., 2021)
  - Human Mortality Database (HMD)
  - 주단위 사망률 자료 (2022년 30번째 주까지, annualized)
  - 연령집단: 0-14, 15-64, 65-74, 75-84, 85+
- 초과사망률 (Excess mortality rates) 및 누적초과사망률 추정
  - 초과사망률 = 관측된 사망률 (Observed mortality rates) – 기준 사망률 (Baseline mortality rates)
  - 기준사망률의 정의
  - 옵션 1: 2015-2019년의 주간 사망력 변화 추이(선형)가 2020년 이후 지속 (linear)
  - 옵션 2: 2015-2019년의 평균 주간 사망력 (5-yr. Avg.)
  - 누적초과사망률 (*t*) = t 시점까지의 초과사망률의 합

5

한국의 초과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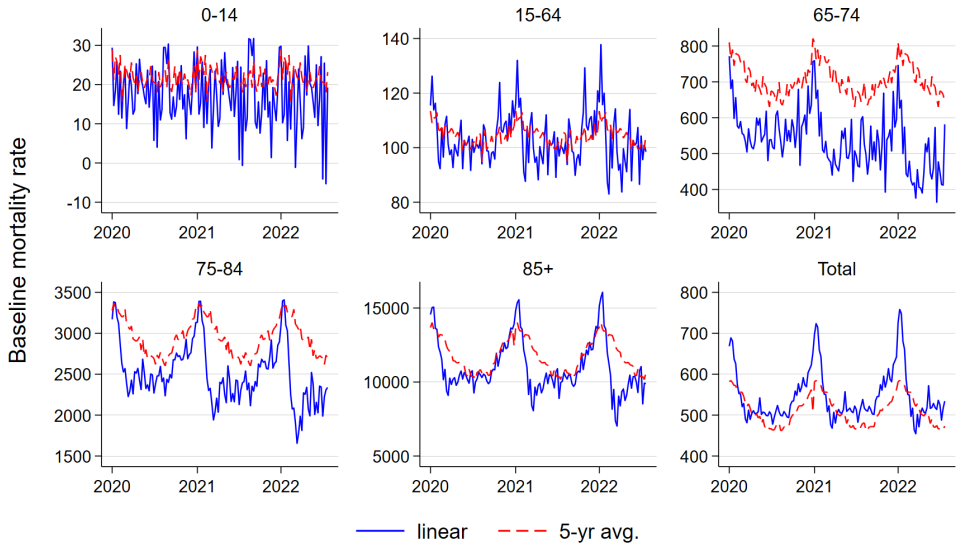
6

기준사망률 (Baseline mortality)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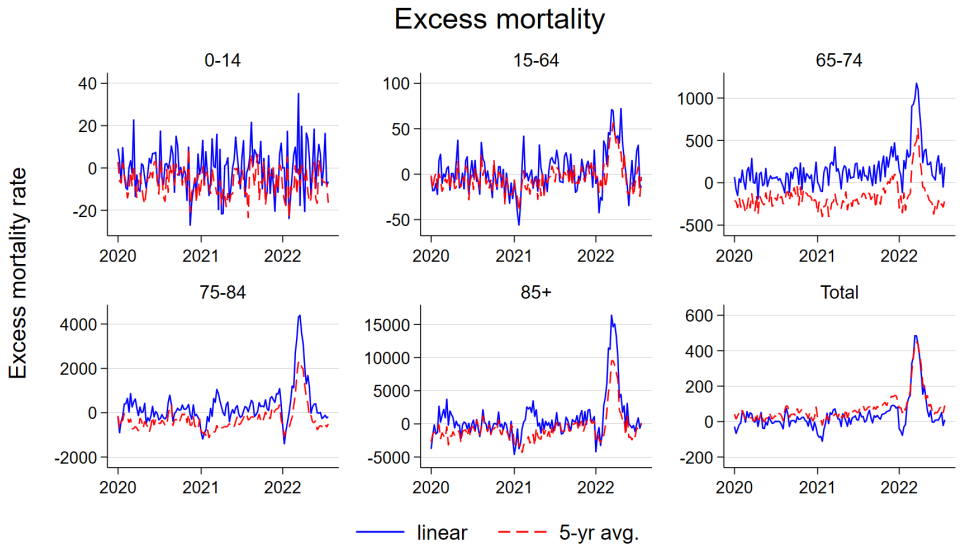
7

기준사망률 (Baseline mortality)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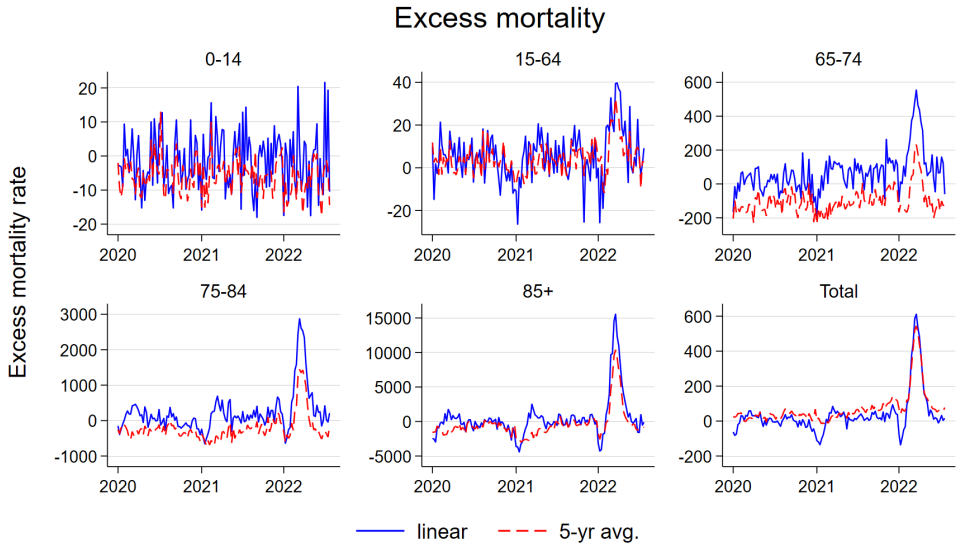
8

초과사망률 (Excess mortality rates)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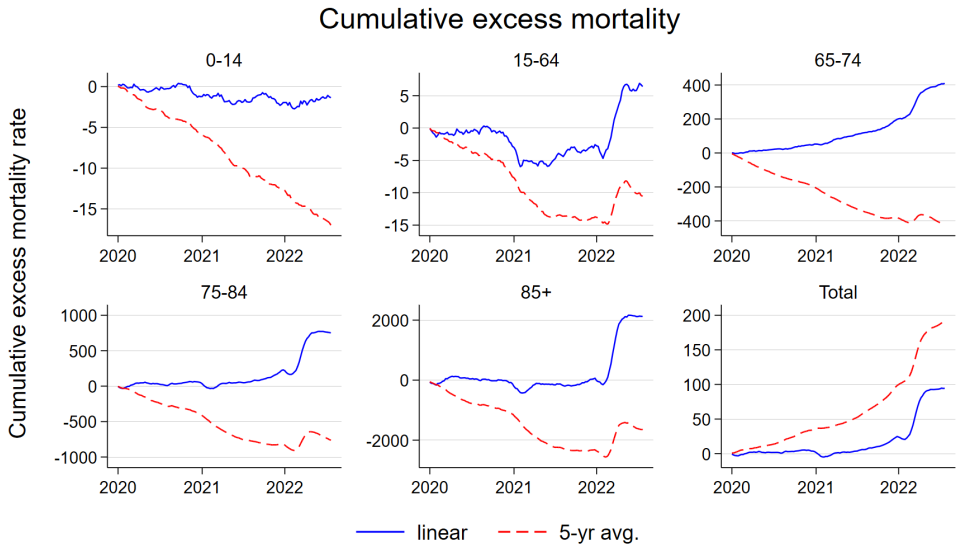
9

초과사망률 (Excess mortality rates)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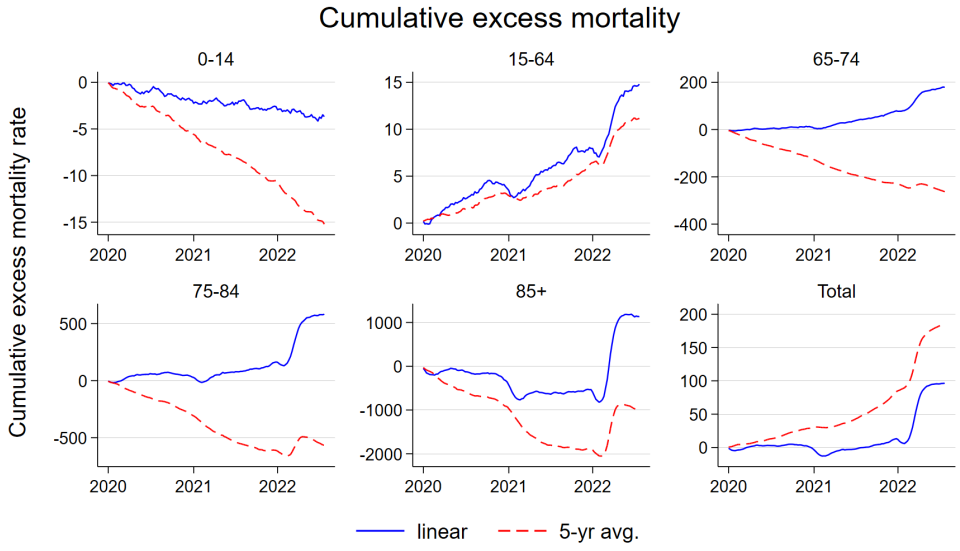
10

누적초과사망률 (Cumulative Excess mortality rates) (남성)



11

누적초과사망률 (Cumulative Excess mortality rates) (여성)



12

2020년 30번째 주까지의 누적 사망률 vs. 2019 사망률

(Unit: 100,000)

	A. CEMR1 (Linear)	B. CEMR2 (5-yr. avg.)	C. 2019 Mortality	A/C	B/C
		Men			
Age					
0-14	-1	-17	24	-4.2	-70.8
15-64	6	-11	250	2.4	-4.4
65-74	410	-425	1549	26.5	-27.4
75-84	752	-763	4923	15.3	-15.5
85+	2126	-1645	14379	14.8	-11.4
Total	94	191	624	15.1	30.6
		Women			
Age					
0-14	-4	-15	19	-21.1	-78.9
15-64	15	11	105	14.3	10.5
65-74	179	-263	621	28.8	-42.4
75-84	582	-566	2672	21.8	-21.2
85+	1136	-1019	11070	10.3	-9.2
Total	97	187	522	18.6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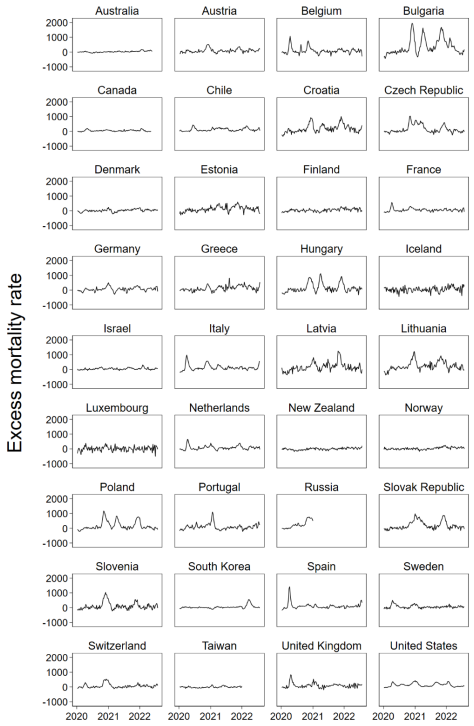
Source: Short Term Mortality Fluctuation (www.mortality.org) (09/26/2022)

13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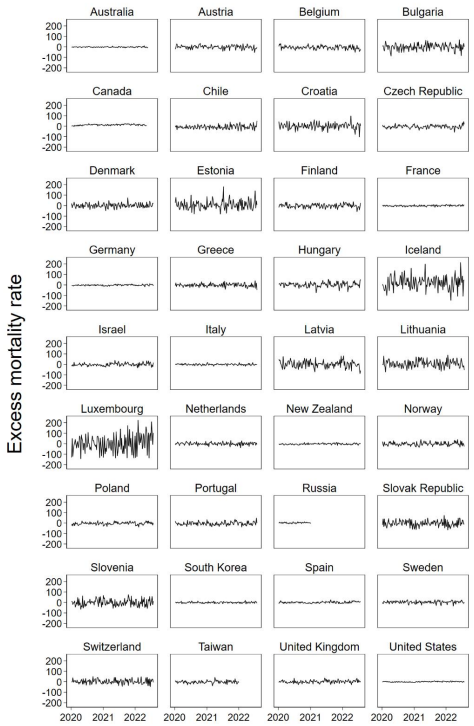
14

초과사망률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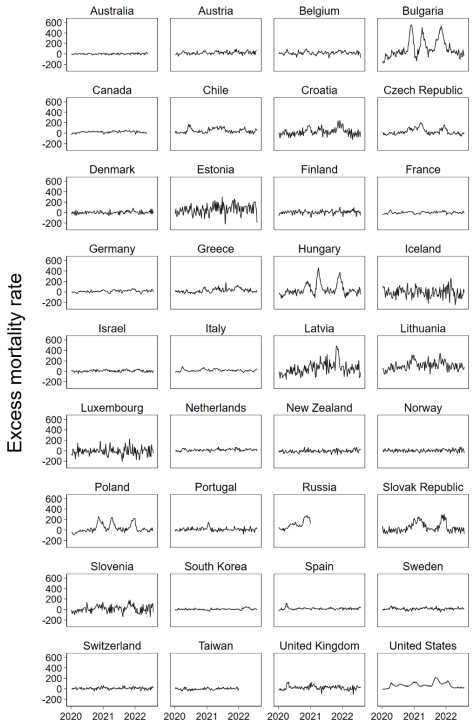
15

초과사망률
(0-1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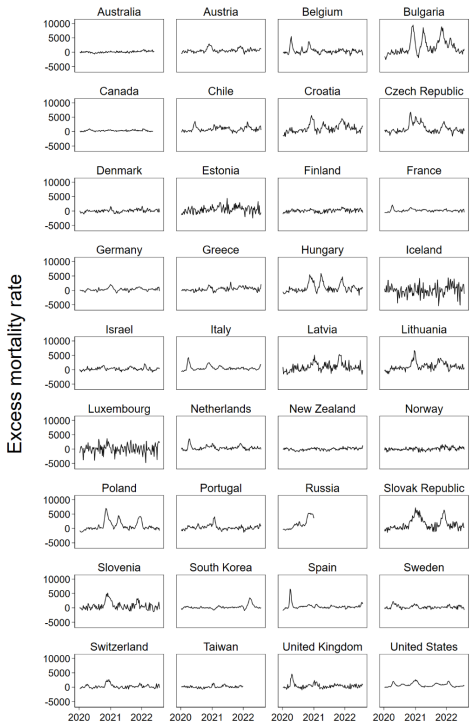
16

초과사망률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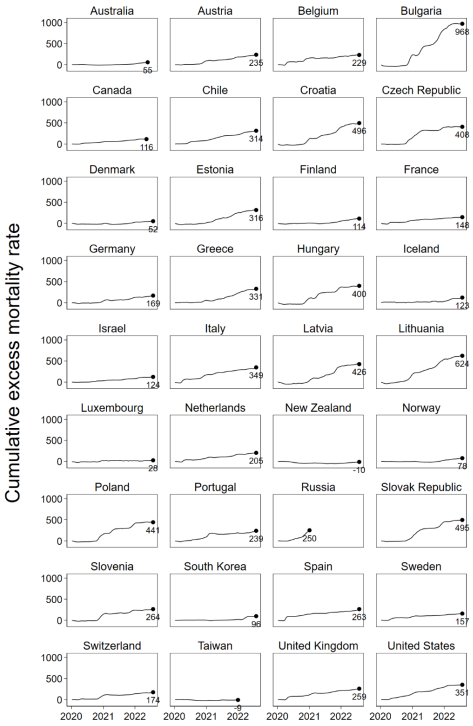
17

초과사망률 (75-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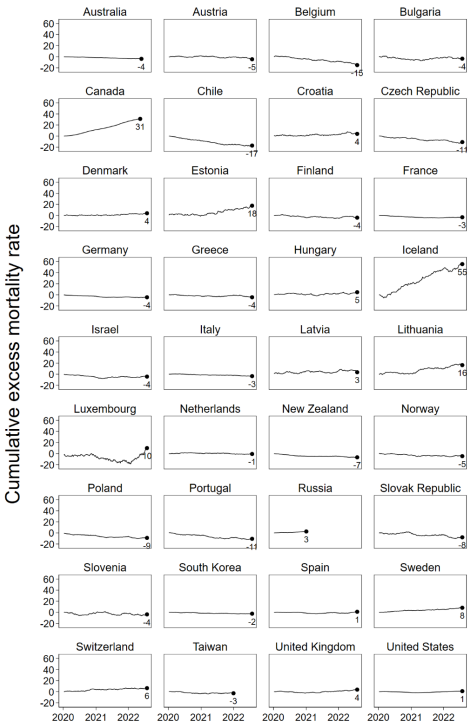
18

누적초과사망률 (전체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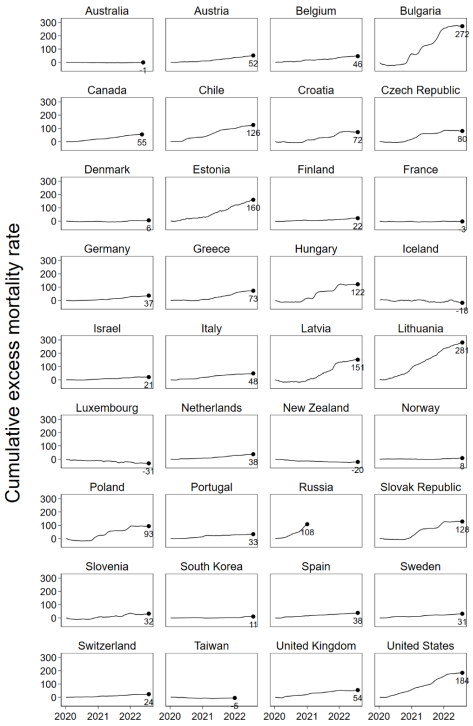
19

누적초과사망률 (0-1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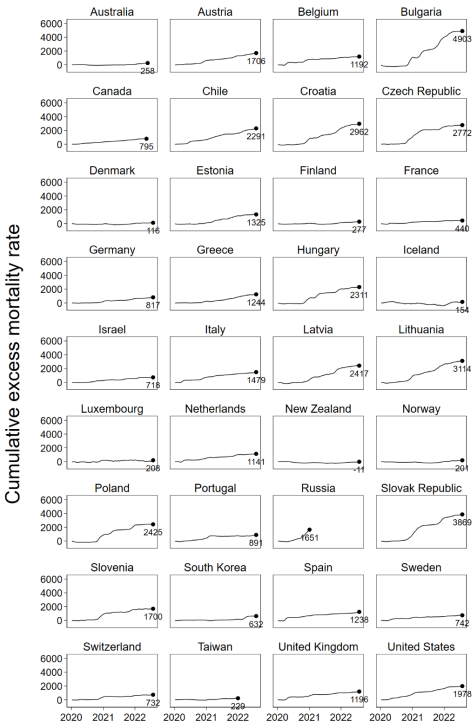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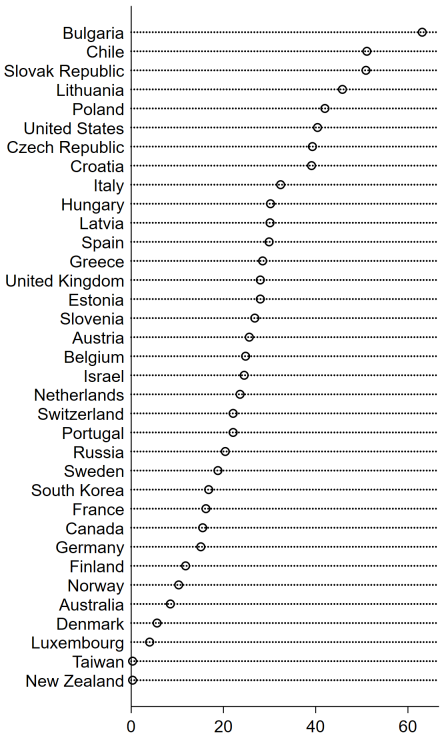
누적초과사망률 (15-64세)



누적초과사망률 (75-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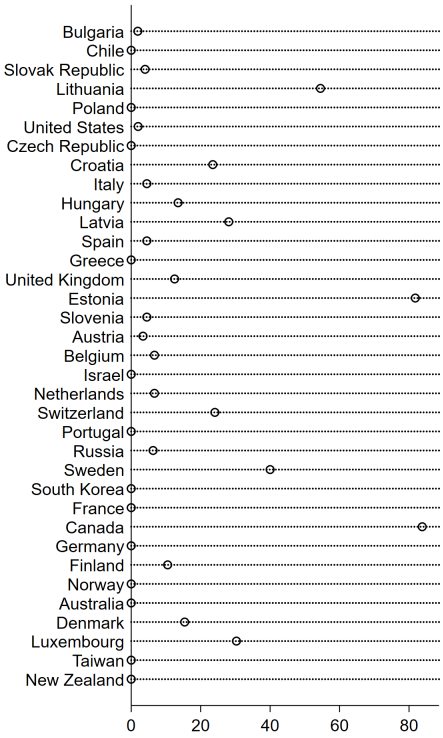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전체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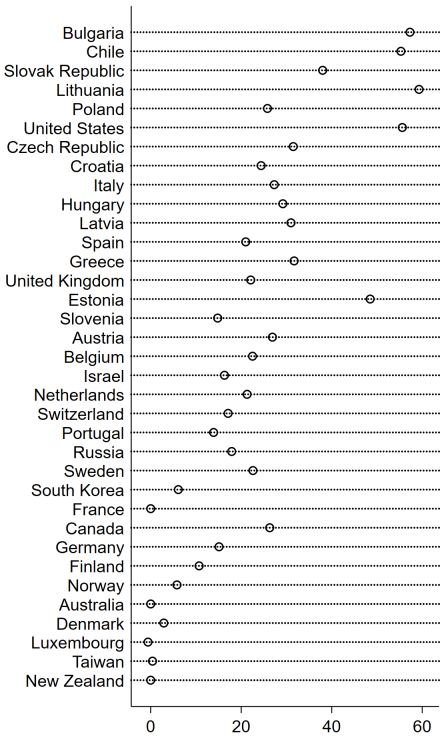
23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0-1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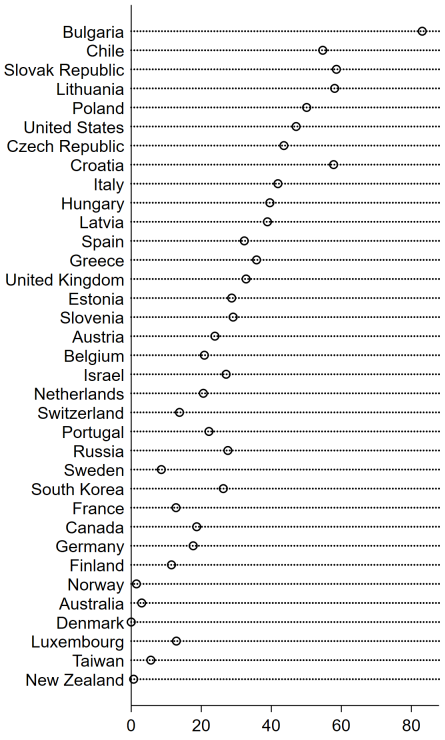
24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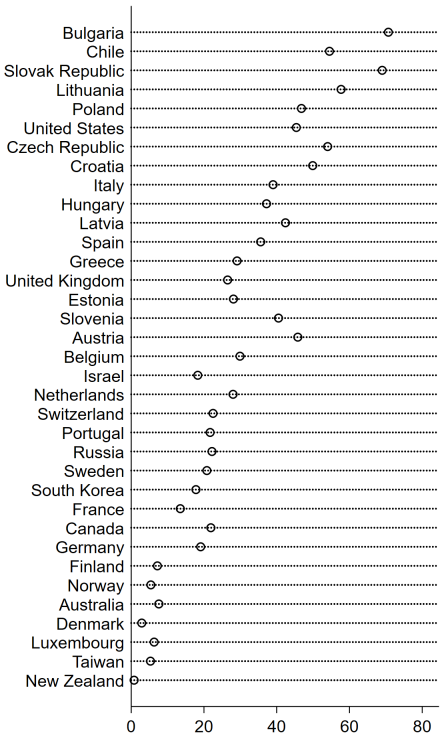
25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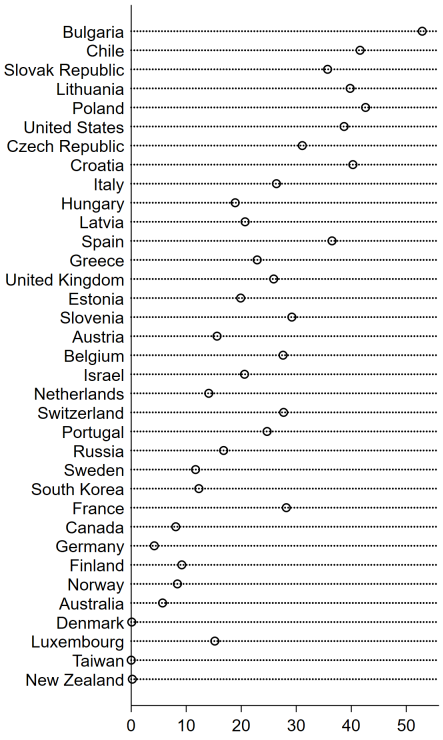
26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75-84세)



27

누적초과사망률 vs. 2019 사망률 (85세+)



28

결론

- 한국
  - 2022년 봄까지는 초과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
  - 2022년 봄에 초과사망이 많이 증가했으나, 이후 안정화됨.
  - 2019년 사망률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30번째 주까지 약 20%의 초과사망이 발생함.
- 국제비교
  - 국가간 변이가 큼.
  - 동유럽 국가의 초과사망률이 높음.
  - 한국의 초과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2022년 봄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함.

29

주제발표 2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 사회적 조건으로서 쉼

김 주 연
서울시립대학교

2023. 3. 24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만족도, 각종 사회적 웰빙 및 행복 지수는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GDP 세계 10위(IMF, 2020) vs 삶의 만족도 32위/38개국 (OECD, 2019),
  - 행복수준 62위/149개국(UN, 2021)
-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등이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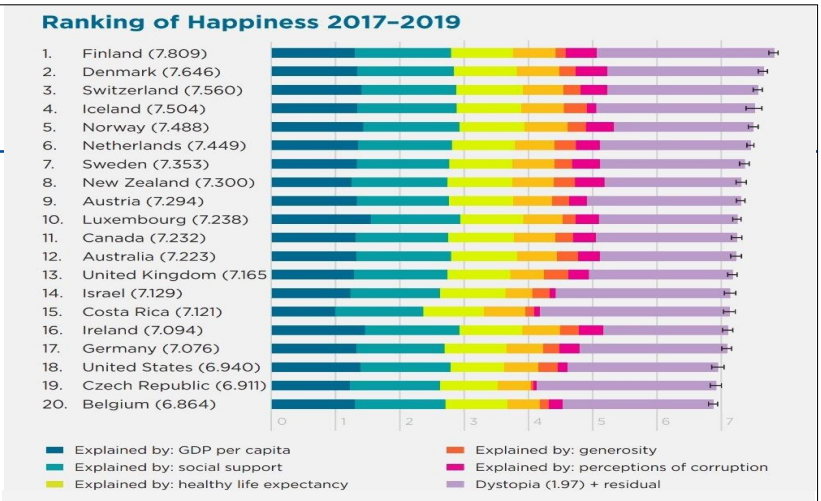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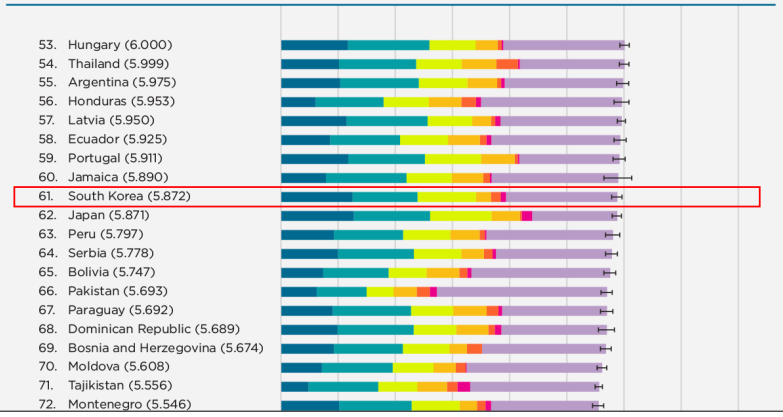


Figure 2.1: Ranking of Happiness 2017–2019 (Part 2)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연간 1,967시간, OECD 2위)
  - 세계 최고의 자살률
  -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주관적 건강인식
  - 높은 노인 빈곤율
  -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등

- 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 휴식과 쉼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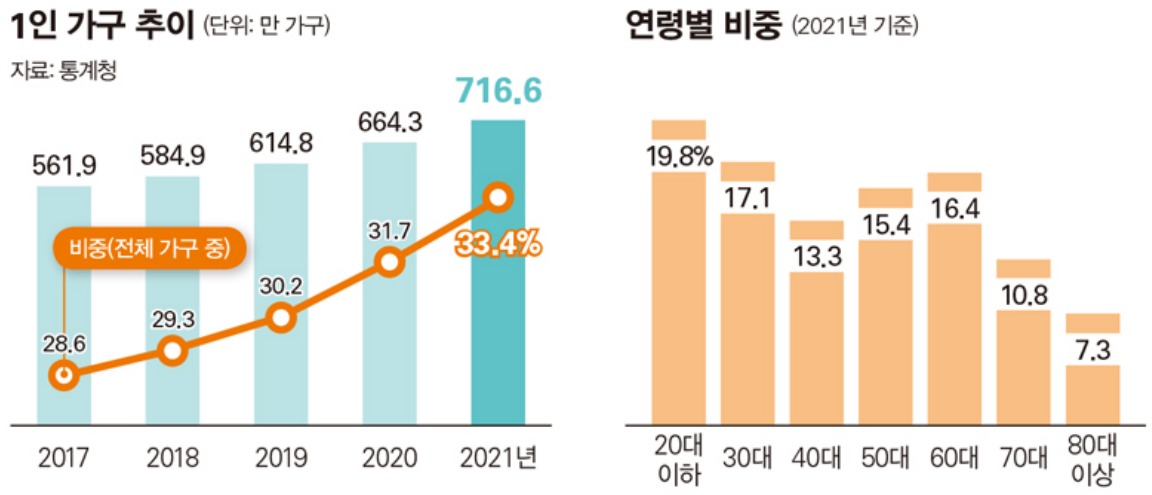
-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쉼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쉼의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됨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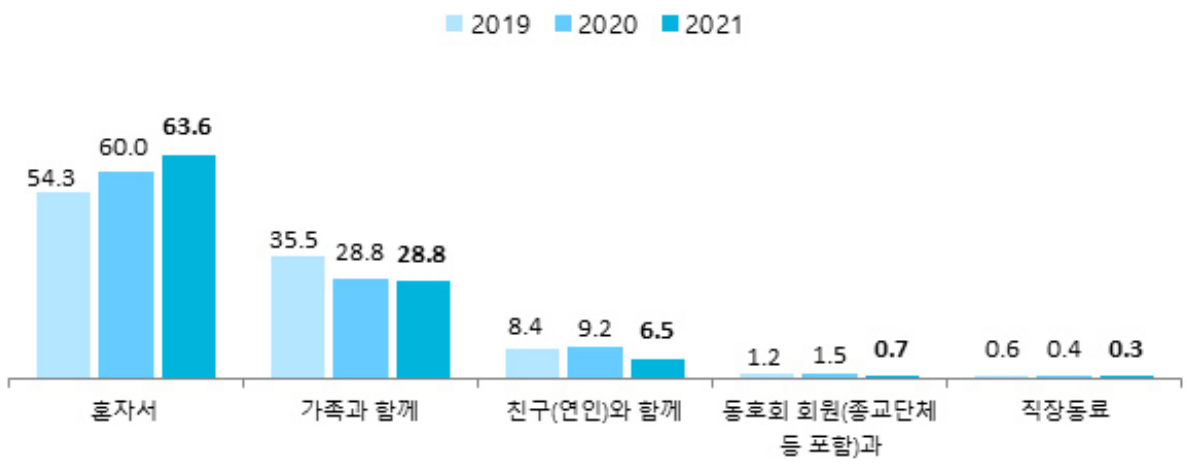
- 누가(연령, 성별 등), 왜(소득, 직업, 건강 등), 어떤 형태의 쉼의 부족을 겪고 그에 따라 잠재적인 건강 위험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쉼의 지형을 파악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등 쉼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700만이 나 홀로 집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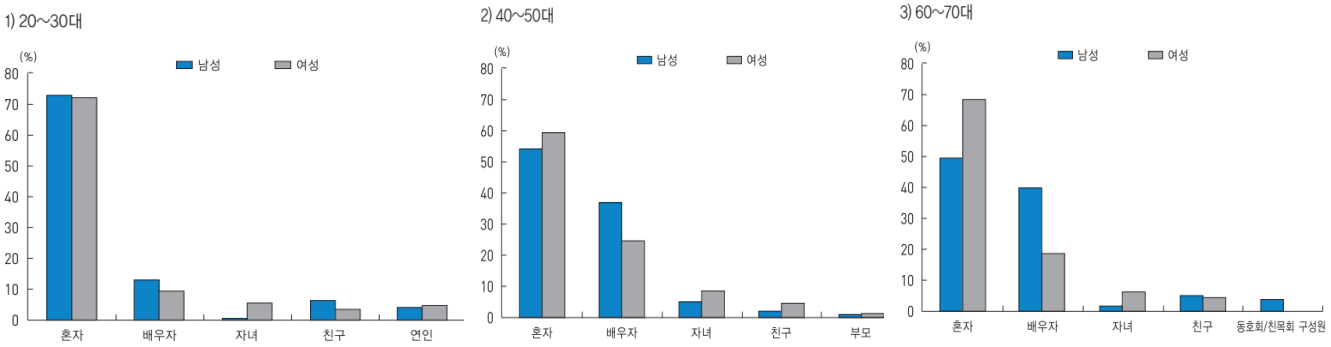
가족들보다 나 홀로 여가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1순위 응답자만)

쉬는 것도 혼자서 …

[그림Ⅶ-18] 세대 및 성별 쉼 동반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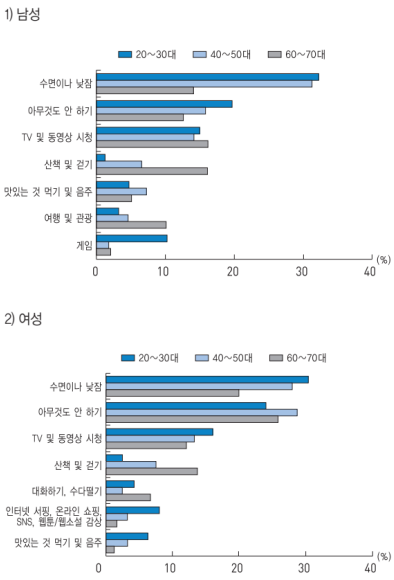


한국인 대부분은 혼자 쉼

- 평상시 '누구와' 주로 쉬는가에 대한 1순위 응답 분포임
- 높은 비율이 혼자서 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친구, 자녀 등과 함께 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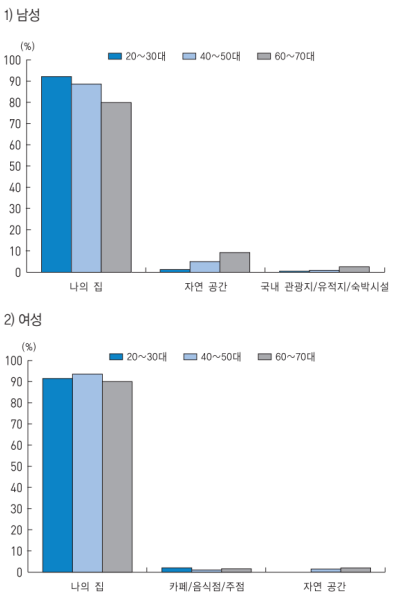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며 쉼

[그림Ⅶ-19] 세대 및 성별 일상적 쉼 활동, 2021



주: 1) 20~30대는 만 18~3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김주연 외, 「2021 한국 사회의 쉼과 건강 조사」, 원자료, 2021.

[그림Ⅶ-20] 세대 및 성별 일상적 쉼 공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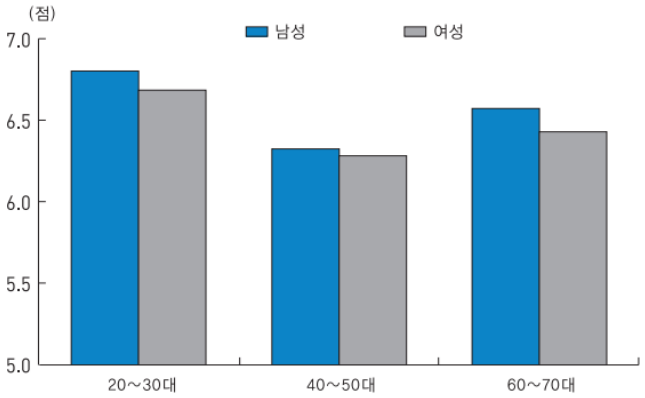
주: 1) 20~30대는 만 18~3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김주연 외, 「2021 한국 사회의 쉼과 건강 조사」, 원자료, 2021.

비활동적인 쉬는 방식

- **일상적 쉼 활동:**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거나 잠을 자며 쉬고 있음
- **일상적 쉼 공간:** 압도적으로 집
- 코로나19 전후 차이 없음

쉼 만족도

연령대별×성별 일상적 쉼 만족도 (단위: 점)



주: 1) 20~30대는 만 18~3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김주연 외, 「2021 한국 사회의 쉼과 건강 조사」, 원자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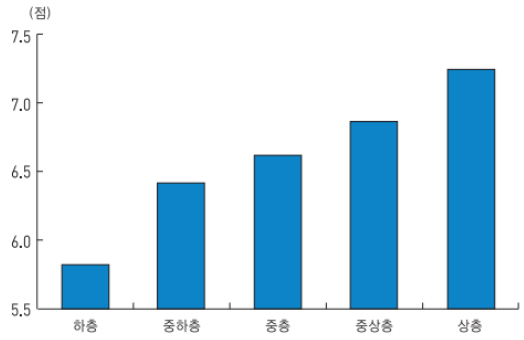
일상적 쉼 만족도 평균 6.5점
(0점~10점, 11점 척도)
: 대략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의 수준

중년 여성과 남성이 만족도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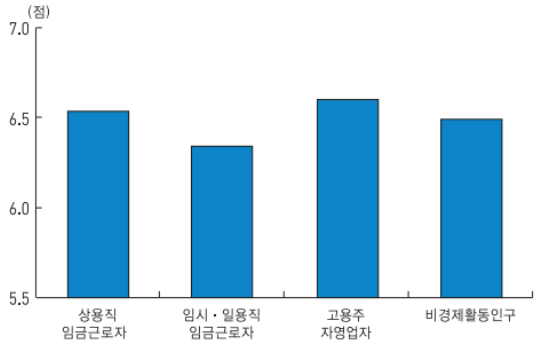
4050 일과 가정 모두 부담
: 과도한 업무, 결혼, 출산, 육아, 부모 돌봄

쉼 만족도

1)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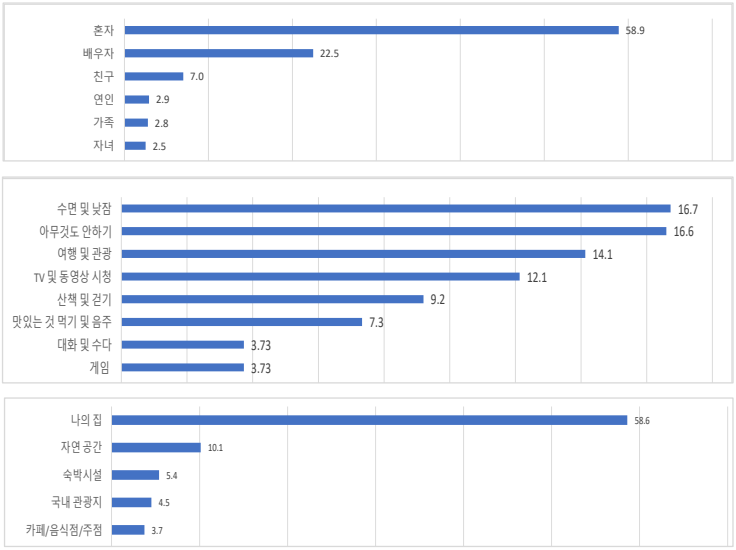
2) 경제활동 참여상태



주관적 계층의식과 학력에 따른 쉼 만족도 차이
: <u>하층(58/100점),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이하(63/100점)는 평균 이하 만족도</u>

이상적 쉼

이상적 쉼: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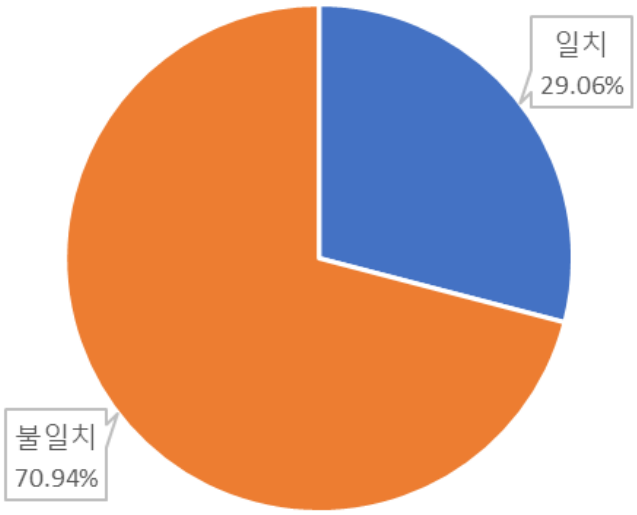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쉼

- 혼자,
- 나의 집에서,
- 수면 및 낮잠
  또는
- 아무것도 안 하기

➔ 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제한적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이상적인 쉬는 방식과 평상시 쉬는 방식의 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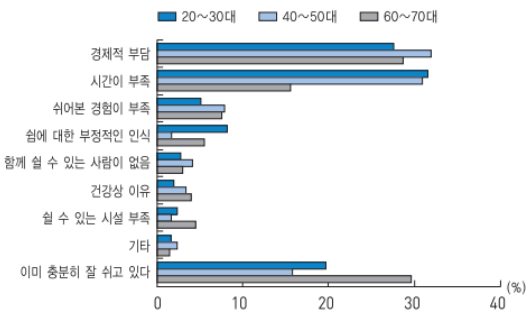


한국인의 71%는 원하는 방식으로 쉬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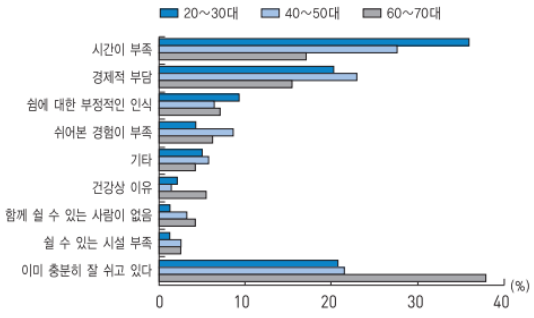
-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라는 쉬는 방식에 있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쉬지 못하고 있음.
- **잘 쉴 수 있는 지식과 자원과 관련된 '쉼 역량'**에 있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상황을 드러냄

잘 못 쉬는 이유, 2021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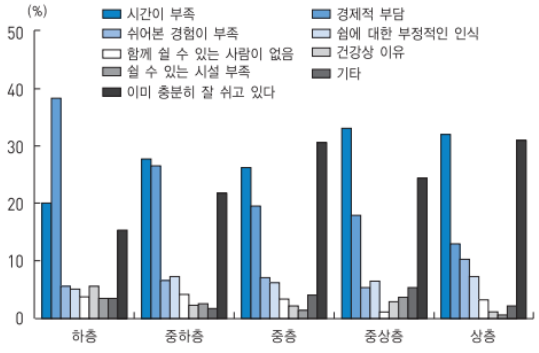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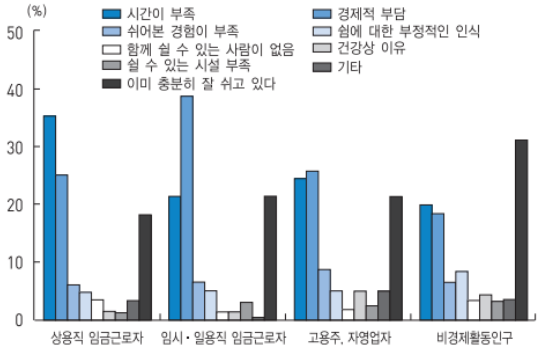
남성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성은 시간이 부족하여 잘 못 쉼

잘 못 쉬는 이유

1)계층



2) 경제활동 참여상태



쉼 역량

- **쉼 역량:**

Q1. “나는 평소 쉬고 싶을 때 잘 쉴 수 있다.” **[쉼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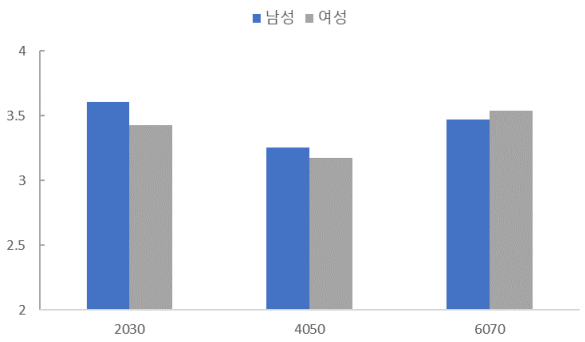
Q2. “나는 내가 어떻게 쉬어야 잘 쉴 수 있는지 안다.” **[쉼 능숙도]**

Q3. “나는 잘 쉬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환경, 관계 등을 가지고 있다.” **[쉼 수단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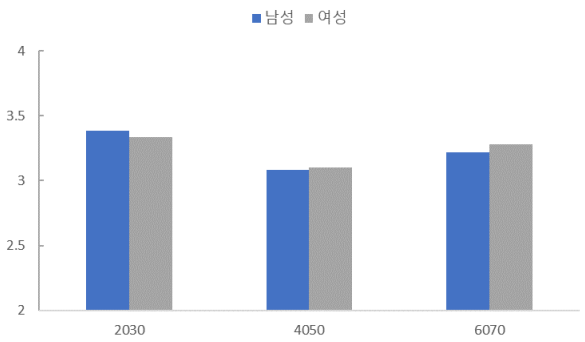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역코딩: 1~3 =1, 4~5=0; Q1~Q3 합)

쉼 역량: 세대 및 성별

1) 쉼 자율성: 쉬고 싶을 때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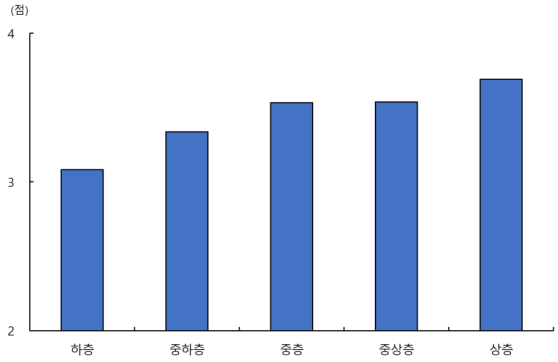
2) 쉼 수단 접근성: 필요 자원, 환경,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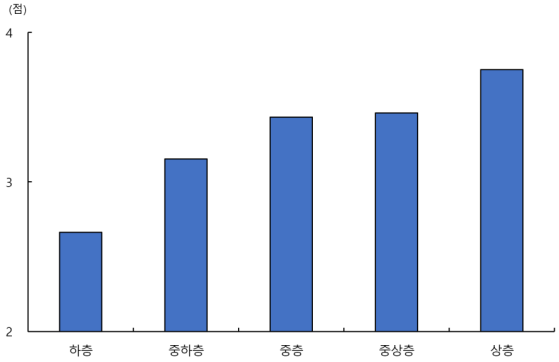
주: 1) 2030은 만 18세~만2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나는 평소 쉬고 싶을 때 잘 쉴 수 있다” “나는 잘 쉬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환경, 관계 등을 가지고 있다” 질문에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한 평균

쉼 역량: 계층별

1) 쉼 자율성: 쉬고 싶을 때 쉰다



2) 쉼 수단 접근성: 필요 자원, 환경, 관계



주: 1) 2030은 만 18세~만2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주관적 계층의식은 "귀하는 이 척도에서 본인이 어디에 위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최하위층 1점에서 최상위층 10점 사이에 응답한 것을 5분위로 나눈 것임(하=20.4%, 중하=21.2%, 중간=21.8%, 중상=18.6%, 상=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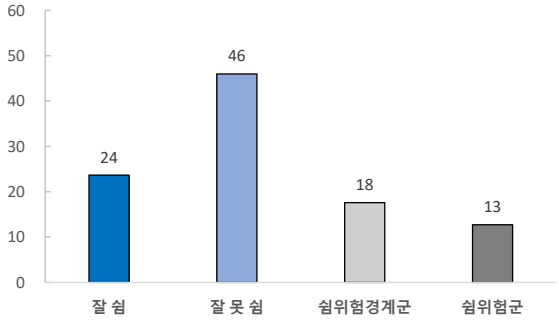
쉼 위험군 분포

〈표 Ⅶ-2〉 쉼 상태별 쉼 역량, 2021

쉼 상태	쉼 역량		
	충분	부족	위험
충분히 쉼	333	19	3
잘 못 쉬는 이유 있음	690	264	191

		자율성	
		부족	충분
수단 접근성	부족	위험	부족
	충분	부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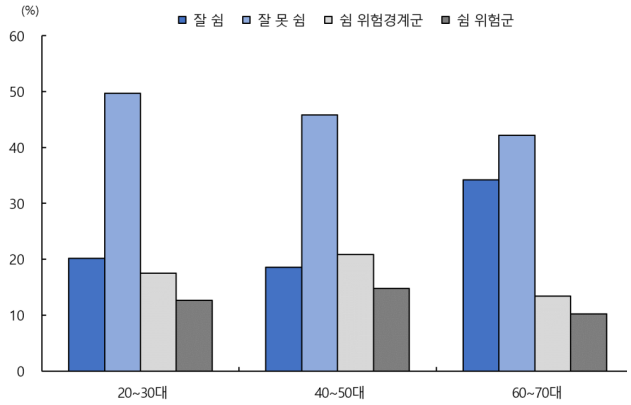
[그림 Ⅶ-27] 한국 사회의 일상적 쉼 분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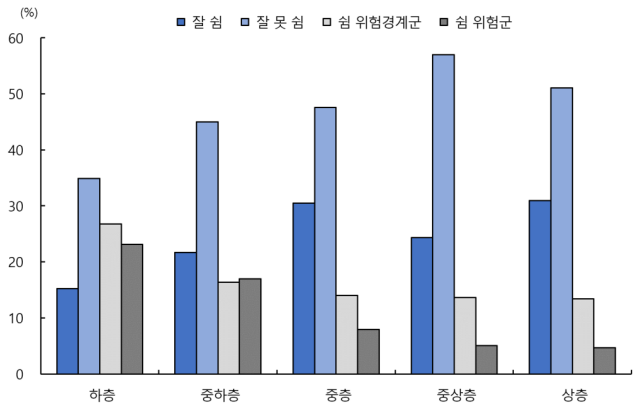
주: 1) "충분히 쉼"은 잘 못 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고,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은 잘 못 쉬는 이유에 응답한 사람임.
2) 쉼 역량은 "나는 평소 쉬고 싶을 때 잘 쉴 수 있다"와 "나는 잘 쉬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환경, 관계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서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부족"으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충분"으로 나눈 후,
두 질문 모두 부족으로 응답하면 "위험", 두 질문 모두 충분으로 응답하면 "충분", 둘 중 하나만 충분이면 "부족"으로 분류하였음.

일상적 쉼 분포

1)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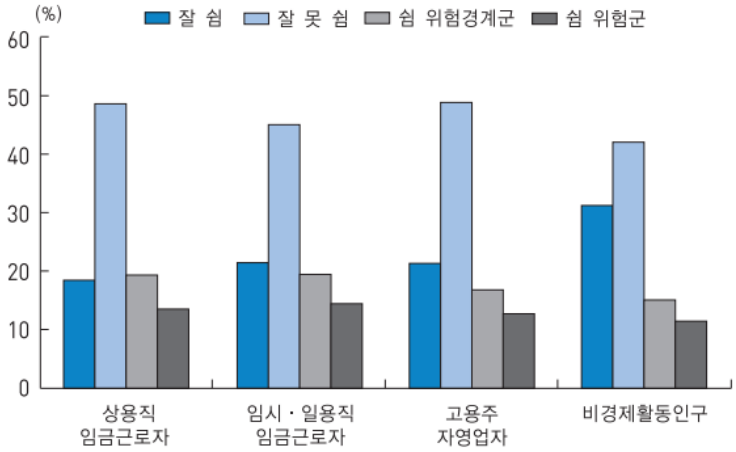
2) 계층



주: 1) "쉼 위험군"은 쉼 역량이 "위험"이면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군"으로, 쉼 역량이 '부족'하고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경계군"으로, 쉼 역량은 '충분'하나 쉼 상태에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잘 못 쉼"으로, 쉼 역량에 관계없이 '충분히 잘 쉼'에 속하면 "잘 쉼"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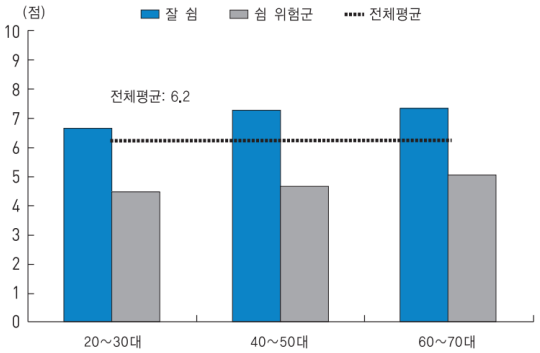
일상적 쉼 분포

3) 경제활동 참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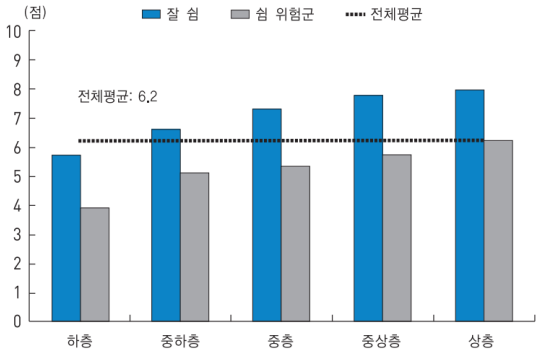


쉼 위험군과 행복감

1)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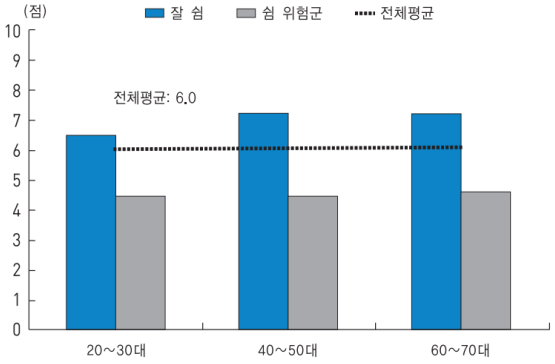
2)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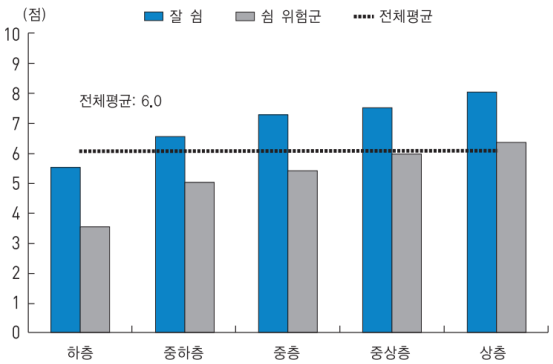
주: 1) “쉼 위험군”은 쉼 역량이 “위험”이면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군”으로, 쉼 역량이 ‘부족’하고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경계군”으로, 쉼 역량은 ‘충분’하나 쉼 상태에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잘 못 쉼”으로, 쉼 역량에 관계없이 ‘충분히 잘 쉼’에 속하면 “잘 쉼”으로 분류함.

쉼 위험군과 삶의 만족도

1) 세대별



2) 계층별



주: 1) “쉼 위험군”은 쉼 역량이 “위험”이면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군”으로, 쉼 역량이 ‘부족’하고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쉼 위험경계군”으로, 쉼 역량은 ‘충분’하나 쉼 상태에서 ‘잘 못 쉬는 이유 있음’이면 “잘 못 쉼”으로, 쉼 역량에 관계없이 ‘충분히 잘 쉼’에 속하면 “잘 쉼”으로 분류함.

맺음말

- 쉼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
- 사회적 조건으로서 쉼(Rest as social condition). 세대별, 성별,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분포
- 쉼 역량은 1)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을 수록, 2) 쉬는 방법을 알 수록, 3) 쉴 때 필요한 자원, 환경, 관계 등을 가지고 있을 수록 높다.
- 쉼 역량은 40~50대가 가장 낮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 수록 낮다.
- 한국인의 50% 가까이는 잘 못 쉬는 집단에 속하고, 18%는 쉼 위험경계군에, 13%는 쉼 위험군(역량부족, 잘 못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층의 1/3은 잘 쉬는 집단에 속하는 반면, 하층은 절반은 쉼 위험군과 쉼 위험경계군에 속한다.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경우 상층의 쉼 위험군 집단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층은 잘 쉬는 집단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정인관 숭실대학교 교수

코로나 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일의 변화

2023.03.24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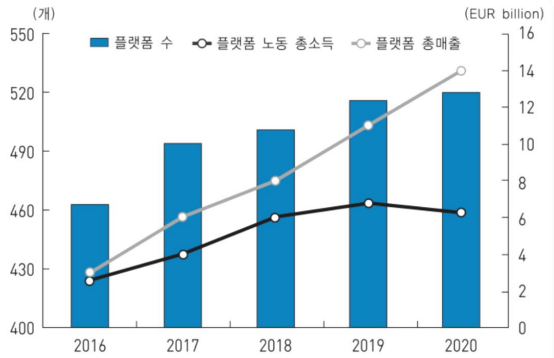
정 인 관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플랫폼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 플랫폼 경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거래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
- 플랫폼 노동: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찾고 소득을 얻는 행위
  - 장소기반 노동: 택시, 배달, 가사도움
  - 온라인 웹기반 노동
-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이 비대면 노동의 확대로 이어진 상황에서 소득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의 측면에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탐색이 필요
- 한국 사례는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를 인용, 미국은 퓨 리서치 센터(2016, 2021), JP모건 자료(2021), 유럽은 COLLEEM(2017, 2018) 조사결과와 ETUI(2021)의 보고서 참고

플랫폼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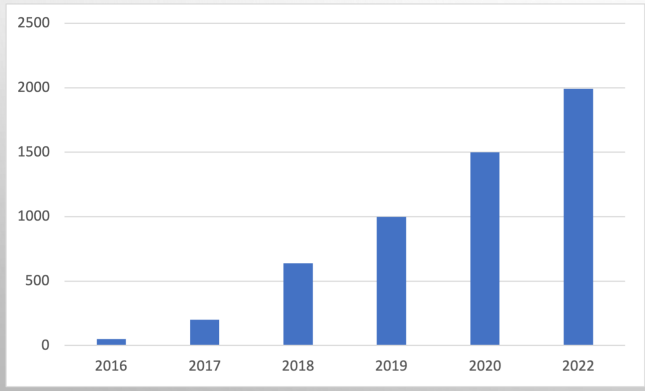
- 유럽연합 27개 국에서 2016-2020년 사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수는 10%, 노동 총소득은 140%, 총매출규모는 370% 증가
- 2020년 초반부터 확산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총소득은 2019년 6.8조 유로에서 2020년 6.3조 유로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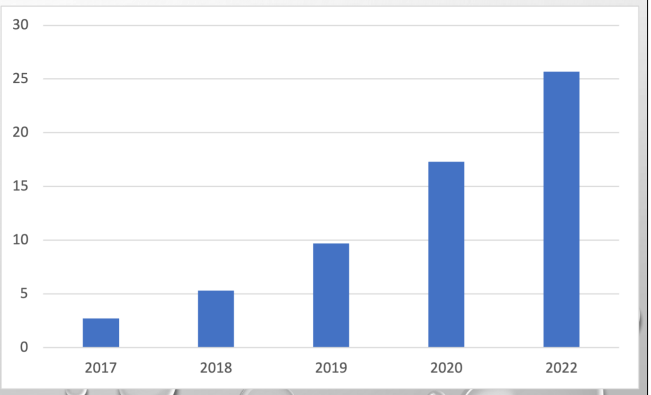
주: 1) 소득과 매출액의 단위는 조 유로임.
출처: European Commission,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he EU*, 2021.

한국에서 플랫폼의 성장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참여회원사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 **(협의의) 플랫폼 노동의 정의**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20)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나 가상재화의 생산 (임대업 제외)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함
  -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
  -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함

연도	플랫폼 노동자 (1,000명)	전체 노동자 대비 플랫폼 노동자 비율 (%)			
		전체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2020	220	0.9	0.5	0.5	-
2021	661	2.6	1.2	1.0	0.3

한국: 플랫폼 노동의 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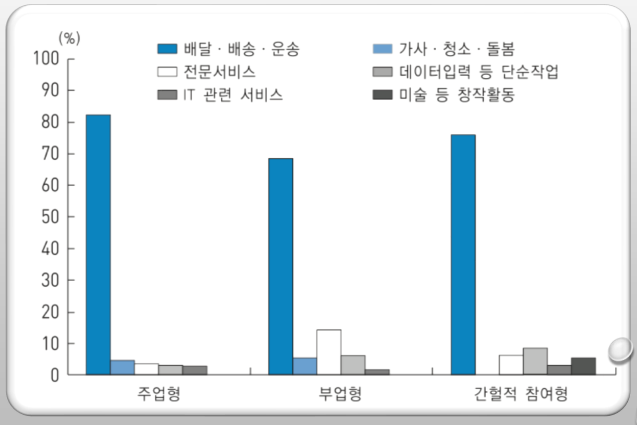
- 배달, 배송, 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은 팬데믹을 거치며 52%에서 76%로 급격하게 증가
- IT관련 종사자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으나 종사자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함
- 남성, 30-40대, 대졸 이상의 비중이 비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높음(2021년)
- 코로나19를 거치며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66.8%에서 76.4%로 높아짐

(%)

	2020	2021
배달 · 배송 · 운송	52.0	76.0
전문서비스	12.5	8.1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7.9	4.8
가사 · 청소 · 돌봄	3.9	4.3
미술 등 창작활동	6.1	2.9
IT 관련 서비스	4.6	2.1
주문제작 · 미용 · 세탁 등 개인서비스	1.8	1.1
기타	11.1	0.4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업종 분포

- 2021년 플랫폼 노동자의 주, 부업 유형별 상위 5개 직종분포
- 주업형의 82.3%, 부업형의 68.5%가 배달, 배송, 운송업에 집중됨
-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담론이 배달 및 운송업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한국: 근무시간 및 서비스 가격의 결정

- 플랫폼에서 근무시간 결정 주체는 플랫폼보다 노동자 본인인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플랫폼이나 소속사가 업무시간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플랫폼 종사자 중 77%가 업무시간을 수시로 바꿀 수 있음
- 서비스 가격 결정의 경우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이는 2021년에 더욱 증가
-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19이후 배달업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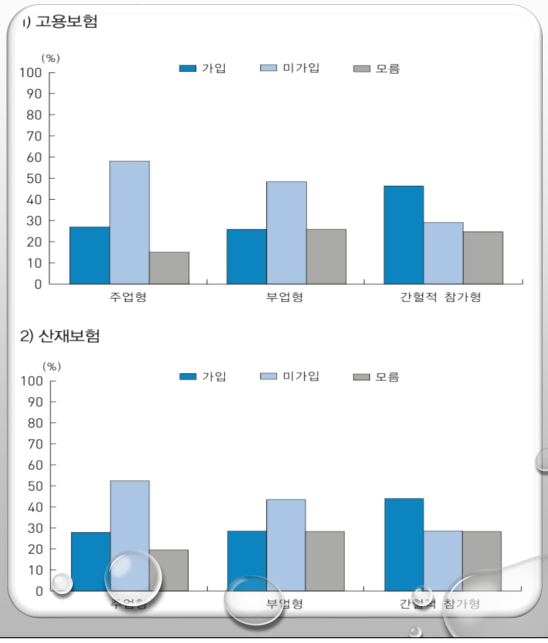
	2020	2021
플랫폼 및 소속사	30.9	30.7
본인		
바꾸기 쉽다	59.5	63.1
일정기간 유지	9.5	6.0

(%)

	2020	2021
플랫폼	41.7	62.3
본인		
단독 결정	14.8	9.5
고객과 협의해 결정	13.7	6.1
플랫폼과 협의해 결정	-	4.3
고용주 및 소속회사	16.6	14.0
고객	12.4	2.8
기타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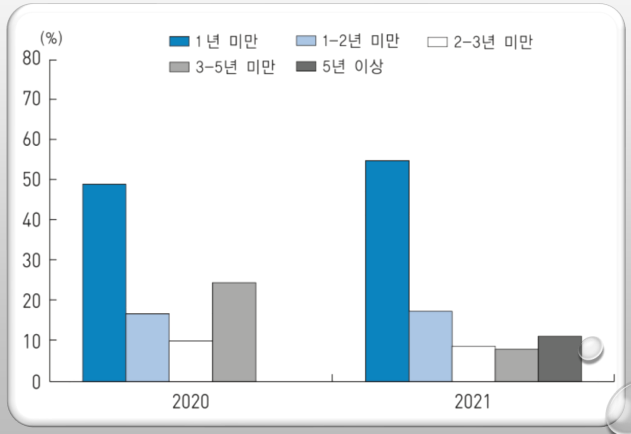
한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실태

-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기존 논의는 노동자의 취약성, 특히 사회적 보호의 부족에 주목함
- 불안한 플랫폼 노동: 2021년 플랫폼 노동 참여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비율은 플랫폼 노동참여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보험의 미가입율이 높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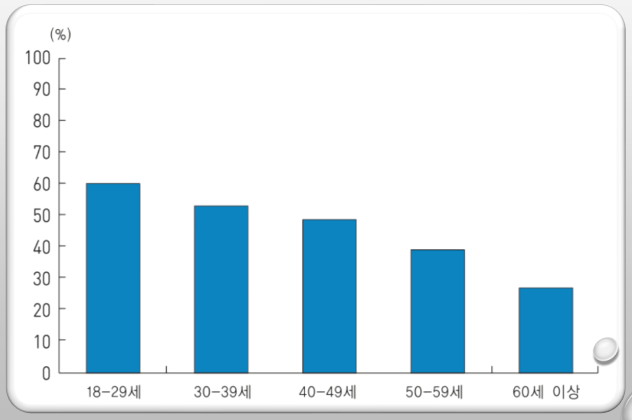
한국: 플랫폼 노동의 미래

- 플랫폼 노동 참여의 낮은 문턱: 최초 참여시점 1년 미만의 참가자가 다수로 이는 2021년에 더 두드러짐
-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과 짧은 기간 머문 후 떠나는 사람의 비중이 모두 높음
- 특히 배달, 배송, 운송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한국: 플랫폼 노동의 미래

-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5년 내에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통해 일을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21년 조사)
- 젊은 세대일수록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인지



미국: 플랫폼 노동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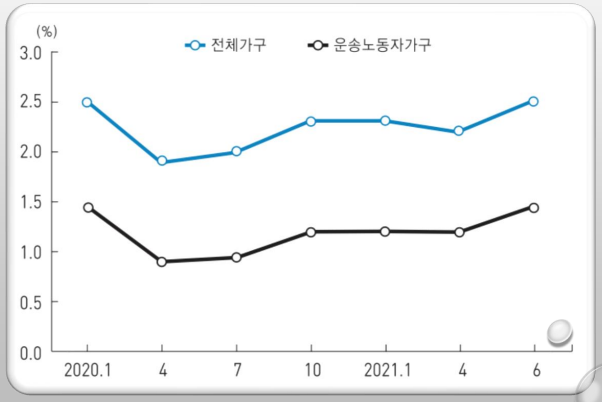
- 2017년 노동통계국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취업자의 1.1%(160만명)로 추산
- "12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6년에 8%, 2021년에는 9%
- 2016년엔 온라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두드러졌으나 2021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배달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큼 (1%에서 6%로)

(%)

플랫폼 노동 참여율 (지난 12개월)	2016	2021
전체	8	9
연령		
18-29세	16	22
30-49세	10	10
50-64세	4	7
65세 이상	2	2
학력		
고졸 이하	9	12
대학 재학 · 중퇴	9	10
대졸 이상	6	6

미국: 플랫폼 노동의 경향

- JP 모건: 38개 대형 플랫폼에서 체이스 은행 구좌로 현금흐름 정보 분석
- 2020년 초 코로나 19 확산 직후 플랫폼을 통한 소득이 급락했다가 2021년 중반 이후 팬데믹 직전 수준에 도달함
- 그림에 나타난 두 선의 흐름과 등락폭의 유사함은 팬데믹이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친 영향의 상당 부분이 운송업을 통해 나타났음을 보여줌



유럽: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별 분포

- 2021년 유럽에서 지난 12개월간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사람은 4.3%이며 주업형은 1.1%
-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사람"은 3.3%
- 온라인 작업 종사자의 비중이 장소기반 노동자의 비중보다 큼

(%)

	유럽 14개국	독일
전체	3.3	2.8
온라인 작업	1.8	1.6
운송 및 배달	0.8	0.8
가사 · 미용 · 수리 등	0.7	0.4
기타	0.0	0.0

유럽: 플랫폼 노동의 경향

-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
- 주업형과 부업형 모두 남성 비중이 높으나 여성 비중 증가 경향
-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온라인 웹기반 노동자의 비중이 장소기반 노동자 비중보다 큼
- 2021년 모든 업종에서 25-34세, 18-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플랫폼 노동이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줌
- 2021년 기준 1년 이내 유입된 사람의 비율이 배달노동자의 경우 48%인데 이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온라인 전문직의 경우 25%로 절반 수준임.

맺음말

- 자료의 한계로 인한 국가간 직접적 비교의 어려움
- 세 지역 모두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 증가 경향: 배달업 성장의 영향
- 한국의 경우 웹기반 노동자보다 장소기반 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코로나19 이후 심화
- 향후 온라인 웹기반 노동의 증대 가능성: 젊은 세대의 높은 참여가능성과 이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 기대
- 노동자의 업무시간 결정의 유연성과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가격결정의 자율성, 고용 및 산재보험적용의 대상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과제

감사합니다

INKWAN82@SSU.AC.KR

주제발표 4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2023. 3.24.

채창균(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제제기

-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휴학, 중도탈락, 졸업 유예 문제 등)과 취업에 미친 영향은?

✓ 비대면 수업 전면화 ➔ 대학생활 부적응 → <u>휴학, 중도탈락, 졸업유예 증가?</u>
➔ 대학 수업이 질 저하 → <u>취업에 부정적 영향?</u>

이용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
- 대학알리미

➔ 두 자료는 거의 동일, 전수조사 자료

- 지역별고용실태조사: 졸업년도와 학력, 일자리에 대한 정보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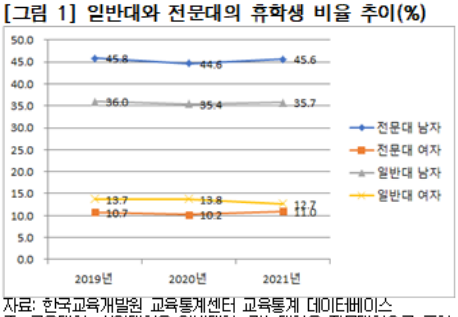
※ 각년도 졸업생 규모 2,000~2,500명, 각년도 취업자 규모 1,000~1,500명

	2021년도 졸업생(2021년 자료)				2020년도 졸업생(2020년 자료)				2019년 졸업생(2019년 자료)				2018년도 졸업생(2018년 자료)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전체	1,333	275	748	2,356	1,159	253	751	2,163	1,194	266	651	2,111	1,376	299	656	2,331
남	629	146	333	1,108	526	145	344	1,015	544	138	295	977	592	167	290	1,049
여	704	129	415	1,248	633	108	407	1,148	650	128	356	1,134	784	132	366	1,282
전문대졸	424	72	177	673	388	60	218	666	380	65	188	633	497	81	164	742
일반대졸	909	203	571	1,683	771	193	533	1,497	814	201	463	1,478	879	218	492	1,589
인문사회계열	710	150	457	1,317	635	144	465	1,244	670	153	384	1,207	734	158	389	1,281
자연계열	623	125	291	1,039	524	109	286	919	524	113	267	904	642	141	267	1,050

코로나19와 휴학

- 전체적으로 휴학생 비율 큰 변화 없음.

[그림 1] 일반대와 전문대의 휴학생 비율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주: 교육대학,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 재적학생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 모두 포함.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

[표 1] 대학특성과 전공계열별 휴학생 비율(%)

			2019	2020	2021
전문대	설립유형	국공립	35.8	34.9	35.2
		사립	31.3	30.0	30.5
	소재지	수도권	31.3	30.1	31.4
		비수도권	31.7	30.5	30.3
	전공계열	인문	43.5	42.5	43.4
		사회	12.2	12.1	12.1
		교육	29.2	27.7	28.9
		자연	30.0	28.9	29.6
		공학	17.7	16.9	16.9
		의약	30.5	27.3	32.0
		예체능	34.9	33.3	33.7
일반대	설립유형	국공립	26.7	26.0	26.0
		사립	26.6	26.3	25.7
	소재지	수도권	25.3	25.5	24.7
		비수도권	27.4	26.7	26.5
	전공계열	인문	31.8	31.2	31.3
		사회	15.0	14.5	14.5
		교육	27.8	27.6	26.4
		자연	25.1	24.8	24.3
		공학	12.1	11.7	11.6
		의약	24.8	24.6	24.0
		예체능	27.3	26.8	26.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주: [그림 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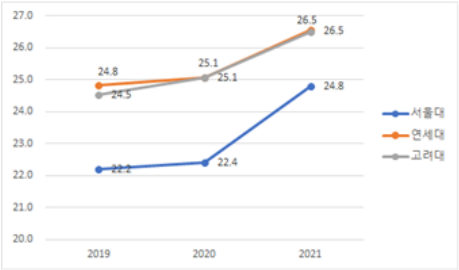
코로나19와 휴학

- 1학년은 증가, 최상위권대학에서 증가: 반수 증가?

[그림 2] 학년별 휴학생 비율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주: [그림 1]과 동일

[그림 3] SKY 대학의 휴학생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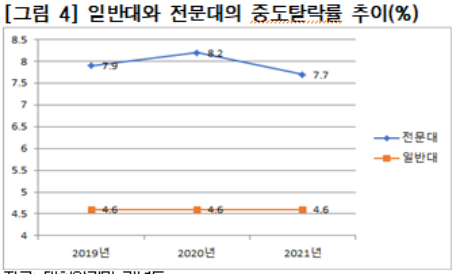


자료: 대학알리미 각년도

코로나19와 중도탈락

-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림 4] 일반대와 전문대의 중도탈락률 추이(%)



자료: 대학알리미 각년도
주: 교육대학,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 재적학생수에는 정원내외, 편교, 편과의 잔류 재적학생 모두 포함. 전년도 4월 기준 재적학생수 대비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 연도 2월말까지의 중도탈락생 비율로 계산.

[표 2] 대학특성과 전공계열별 중도탈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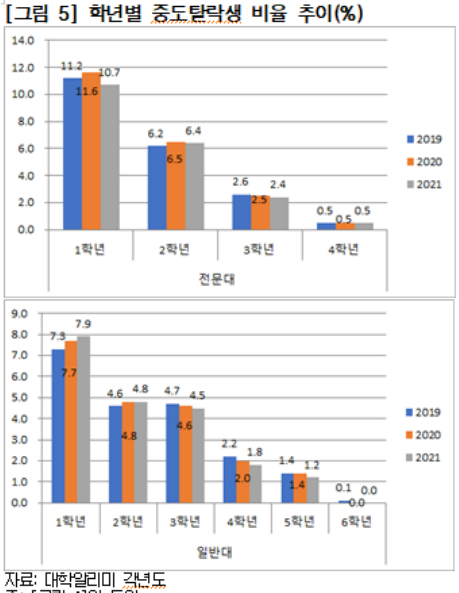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전문대	설립 유형	국공립	9.6	8.9	9.1
		사립	7.8	8.1	7.6
	소재지	수도권	7.6	7.3	6.8
		비수도권	8.1	8.8	8.4
	전공 계열	인문	9.8	10.3	9.2
		사회	9.2	9.7	9.0
		교육	6.7	6.5	6.4
		자연	7.7	8.4	7.7
		공학	8.5	8.7	8.4
		의약	4.3	4.4	4.5
		예체능	9.6	10.0	8.8
일반대	설립 유형	국공립	4.0	4.0	4.0
		사립	4.8	4.8	4.8
	소재지	수도권	3.3	3.5	3.6
		비수도권	5.4	5.4	5.3
	전공 계열	인문	4.6	4.7	5.0
		사회	4.8	4.9	4.8
		교육	2.6	2.7	3.0
		자연	5.0	5.0	5.1
		공학	4.6	4.6	4.6
		의약	2.5	2.5	2.4
		예체능	5.7	5.8	5.5

자료: 대학알리미 각년도
주: [그림 4]와 동일

코로나19와 중도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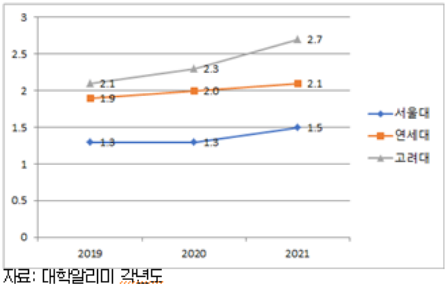
- 1학년은 증가(특히 일반대), 최상위권대학에서 증가: 반수 성공?

[그림 5] 학년별 중도탈락생 비율 추이(%)



자료: 대학알리미 각년도
주: [그림 4]와 동일

[그림 6] SKY 대학의 중도탈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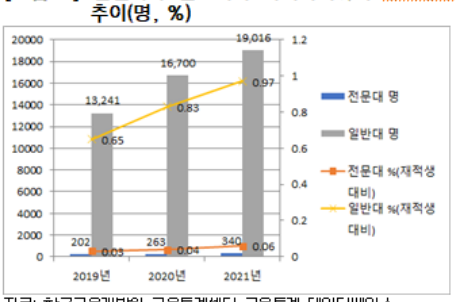


자료: 대학알리미 각년도

코로나19와 졸업유예

-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 노동시장 여건의 어려움 반영?

[그림 7] 일반대와 전문대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수 추이(명,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주: [그림 1]과 동일

[표 3] 대학특성과 전공계열별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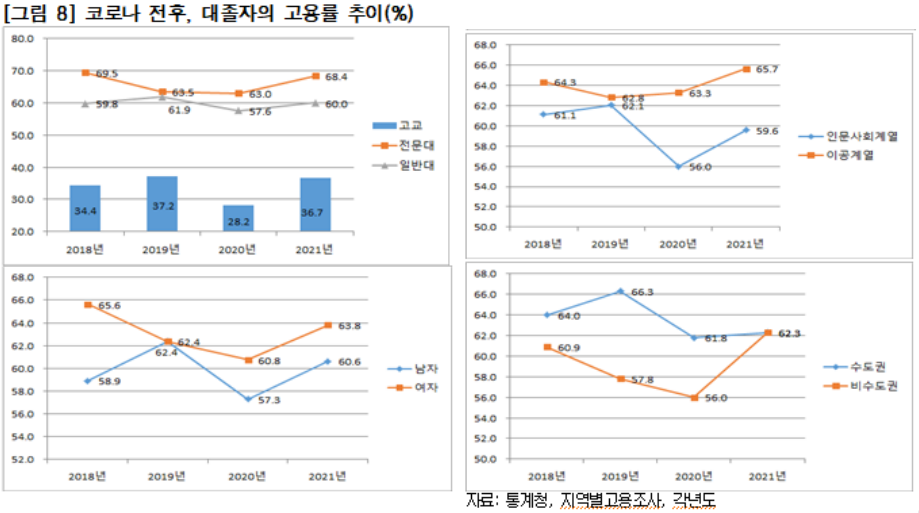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전문대	설립 유형	국공립	3	3	6
		사립	199	260	334
	소재지	수도권	32	158	189
		비수도권	170	105	151
	전공 계열	인문	1	10	26
		사회	53	63	79
		교육	41	51	58
		자연	28	14	12
		공학	51	96	104
		의약	15	14	22
		예체능	13	15	39
일반대	설립 유형	국공립	3,117	3,102	3,290
		사립	10,124	13,598	15,726
	소재지	수도권	6,340	9,902	11,588
		비수도권	6,901	6,798	7,428
	전공 계열	인문	1,770	2,351	2,709
		사회	4,501	5,853	6,957
		교육	465	529	512
		자연	1,419	1,676	1,949
		공학	3,973	4,709	5,167
		의약	208	112	194
		예체능	905	1,470	1,52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주: [그림 1]과 동일

코로나19와 취업의 양적 측면

- 코로나 직후 고용률 크게 하락(특히 일반대), 1년 후 회복
- 대졸자보다 고졸자, 여성보다 남성,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의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큰 상황

[그림 8] 코로나 전후, 대졸자의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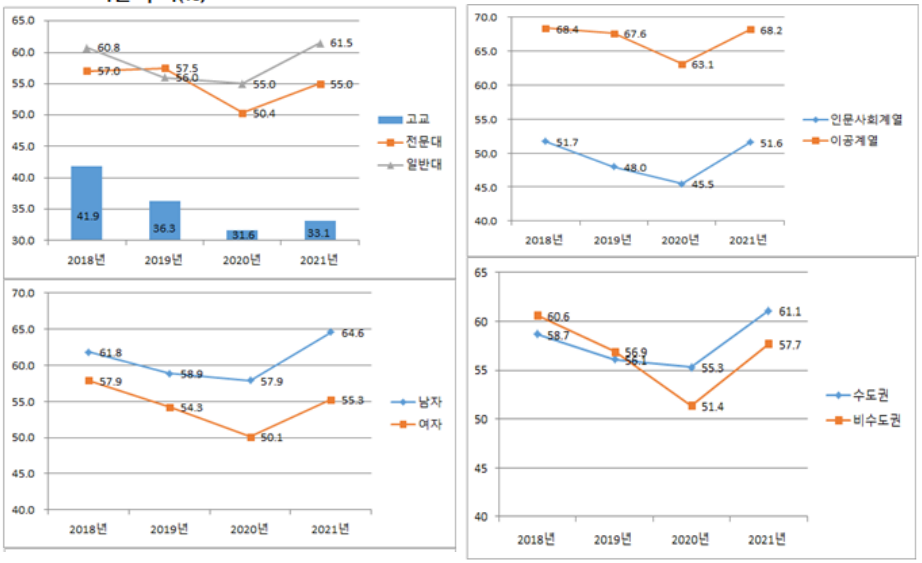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코로나19와 취업의 양적 측면

- 근로시간의 하락추세가 코로나19로 인해 강화, 1년뒤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특히 일반대, 남자, 수도권)

[그림 10] 코로나 전후, 대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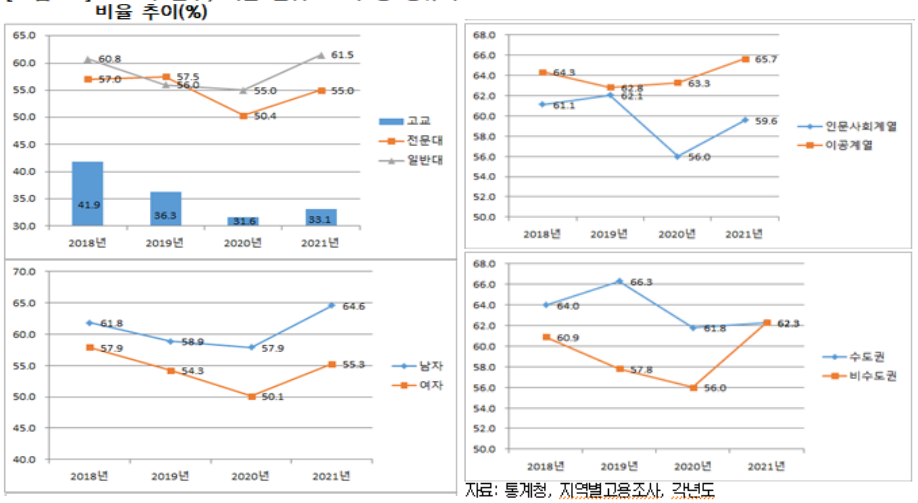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코로나19와 취업의 질적 측면

- 코로나 직후 정규직 비율 크게 하락(특히 일반대), 1년 후 회복
- 대졸자보다 고졸자, 일반대졸자보다 전문대졸자,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대학보다 비수도권대학의 정규직 비율 하락폭이 더 큰 상황

[그림 10] 코로나 전후, 대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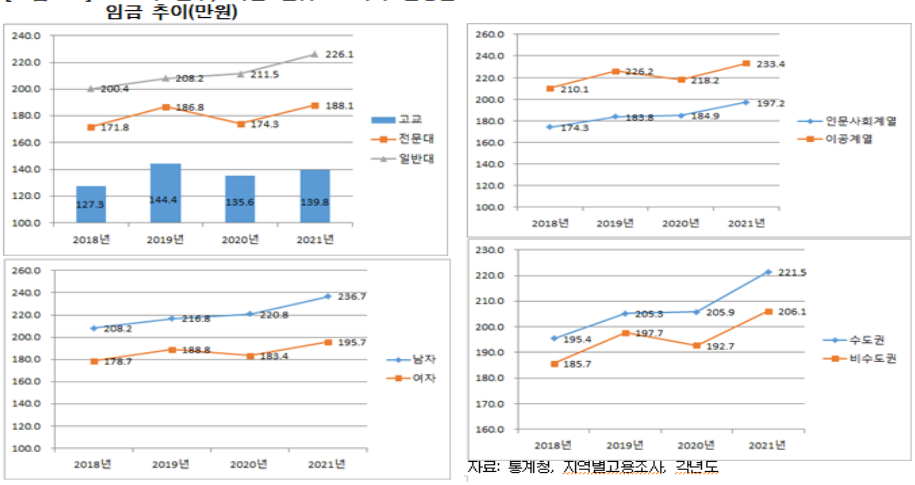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코로나19와 취업의 질적 측면

- 코로나 직후 임금하락 또는 상승폭 둔화, 1년 후 회복 양상
- 대졸자보다 고졸자, 일반대졸자보다 전문대졸자,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대학보다 비수도권대학.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의 임금 하락폭이 더 큰 상황

[그림 11] 코로나 전후,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만원)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코로나19와 취업의 질적 측면

- 대기업 취업자 비중 증가: 코로나19로 중소영세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탓

[그림 12] 코로나 전후, 대졸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다시 요약하면..

- 신입생, 최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휴학생비율과 중도탈락률 증가
- 전반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수 뚜렷이 증가
- 취업의 양적, 질적 측면 악화, 그러나 1년 뒤 대체로 회복 양상
-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학유형, 대학 소재지, 성별, 전공계열별로 다소 상이: 노동시장에서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인 층에 보다 집중(특히 취업의 질적 측면)

NOTE

NOTE

NOTE

NOTE

NOTE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